

충/남/경/제

December 12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2012년 12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박진도

편집위원장 남궁영 · 성태규

편집위원 맹부영, 임재영

집 필 진 총괄 임형빈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홍성효, 김윤아, 이윤경

경제일지 김현철, 최재령, 김범수

외부집필진 원종문(남서울대학교)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65 팩스(041) 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충남지역 상권과 대형소매점 영업활동 규제방향	3
	중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규획과 충남도의 대응과제	14

기업탐방	착한 도시락 '즐거운 밥상'	29
-------------	-----------------	----

경제동향	충남경제동향 (요약)	39
-------------	-------------	----

- | | |
|------------|-------------|
| 1. 경기 | 5. 고용 |
| 2. 산업활동 | 6. 금융 |
| 3. 소비 · 물가 | 7. 건설 · 부동산 |
| 4. 수출입 | |

해외경제동향 (요약)	58
-------------	----

- | | |
|-------|---------|
| 1. 미국 | 3. 일본 |
| 2. 중국 | 4. 유로지역 |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65
-------------	--------	----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73
	2. 충남 주요경제지표	75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77

부록	1.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93
	2.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94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충남지역 상권과 대형소매점 영업활동 규제방향

원 중 문 |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교수

1. 대형소매점 출점의 의미와 전망

2012년 유통산업에서의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는 2011년 말 대형마트와 기업형 SSM의 영업활동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지자체와 대형유통 기업과의 충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1, 2012년 유통이슈 조사에서도 90% 이상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응답했다. 분명 대형소매점 출점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무차별 출점과 그로 인한 점포간의 과잉경쟁으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영업활동 규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을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대형과 중소 유통간의 상생 혹은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양진영에서 강조했고,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대형소매점 규제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대형소매점 출점 전 사전예고제와 소규모 도시에 대형소매점 출점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에 통합민주당은 대형소매점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 출점한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의 영업활동 제한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이슈가 지역상권의 문제인 점과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모든 지역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 보다는 지역 상권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이는 대형소매점이 모든 상권에 같은 분포로 출점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상권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합민주당의 정책이 좀 더 현실성과 실효성을 수반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유통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대형마트보다 영향력이 훨씬 큰 MWC(회원제창고형매장)¹⁾와 도매물류시장의 진입에 대한 대

비는 정치권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우려가 된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해외브랜드 아울렛 등도 분명 광역상권을 타깃으로 하는 쇼핑공간이라 할지라도 지역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에 대해선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본 논문에서는 충남지역에 출점한 대형소매점의 분포와 현황, 대형소매점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 대형소매점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여부와 그 효과, 그리고 충남 내외 출점 예정인 대형쇼핑몰들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충남에 출점한 대형소매점의 분포와 현황분석

1) 충남지역 출점 대형소매점 지역별 현황

충남에는 2012년 9월 현재 총 20개의 대형마트가 공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와 연기군, 홍성군에 출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천안과 아산이 점포수 기준 55.5%, 영업면적 기준 62.8%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규모가 크거나(천안과 아산) 그 지역의 거점도시(당진과 홍성)는 매장당 영업면적이 크고 지역기반의 수요에 의존하는 상권에서는 매장당 영업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형 SSM의 경우는 총 33개가 시·군에 출점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상권과는 차별화하여 골목상권에 진출한 경우(천안)는 매장규모가 작은 반면에 대형마트의 보완관계(보령, 아산, 논산, 당진) 또는 대체 관계(공주, 금산, 예산, 태안)의 상권에서는 매장 규모가 크게 출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부여, 서천, 청양은 산업태의 유통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구매력이 인근 도시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회원제로 운영하는 창고형 매장으로 도소매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단위면적당 매출과 상권의 반경이 대형마트보다 넓다. MWC 형태로 운영하는 기존 매장은 코스트코가 있고 신세계는 Trader's club, 롯데는 Vic Market라는 점포 브랜드를 가지고 출점을 가속화하고 있다.

충남 시·군별 대형마트 출점현황(2012.9월)

구 분	대형마트			기업형 SSM		
	점포수 (개)	점포당인구 (만명)	평균매장면적 (㎡)	점포수 (개)	점포당인구 (만명)	평균영업면적 (㎡)
천안시	8	7.2	9,653	16	3.6	742
공주시	0	—	—	2	6.1	1,507
보령시	2	4.9	7,457	2	4.9	1,394
아산시	3	9.3	9,948	4	7.0	1,138
서산시	2	7.8	4,665	0	—	—
논산시	1	11.9	6,606	1	11.9	2,516
계룡시	1	4.2	6,254	1	4.2	399
금산군	0	—	—	1	5.3	854
연기군	1	8.1	4,404	0	—	—
부여군	0	—	—	0	—	—
서천군	0	—	—	0	—	—
청양군	0	—	—	0	—	—
홍성군	1	8.3	12,090	0	—	—
예산군	0	—	—	2	3.9	1,200
태안군	0	—	—	2	2.7	515
당진시	1	13.7	9,600	2	6.9	1,421
계	20	10.1	8,513	33	6.1	978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리테일 매거진

2) 충남지역 출점 대형소매점 업체별 현황

대형마트의 수로 보면 유통 3사가 고르게 출점하고 있으나 영업면적 점유율로 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경쟁하고 있고, 점포당 평균 영업면적으로도 홈플러스는 약간 작은 매장으로 출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에 출점하는 점포의 매장 규모가 기존 출점한 매장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지역 상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형 SSM의 경우는 슈퍼마켓으로 시작한 롯데와 GS가 단연 선도하고 있다. 특히 매장면적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GS는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유통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 점포규모를 상대적으로 크게 출점하고 있는 반면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아주 작은 규모의 슈퍼로 도시의 골목상권을 타깃으로 SSM을 출점하고 있는 모습이다. GS슈퍼마켓은

출점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골목상권을 잠식하여 중소유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 대형마트 업체별 현황(2012.9월 기준)

구 분		점포수 (개)	비중 (%)	총영업면적 (㎡)	평균영업면적 (㎡)
업 체 명	점포명				
(주)신세계	이 마 트	7	35.0	57,122(33.5)	8,160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6	30.0	43,784(25.7)	7,297
홈플러스테스코(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6	30.0	58,794(34.5)	9,799
(주)메가마트	메가마트	1	5.0	10,560(6.2)	10,560
전 체		20	100.0	170,260(100.0)	8,513

주 : ()내는 비중임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리테일 매거진

충남 기업형 SSM 업체별 현황(2012.5월 기준)

구 분		점포수 (개)	비중 (%)	총매장면적 (㎡)	평균매장면적 (㎡)
업 체 명	점 포 명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15	45.5	12,208(37.2)	814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EX	7	21.2	2,318(7.1)	331
GS리테일	GS수퍼마켓	10	30.3	16,719(50.9)	1,672
(주)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	1	3.0	1,587(4.8)	1,587
전 체		33	100.0	14,975(100)	995

주 : ()내는 비중임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3) 충남지역 출점 대형소매점의 상대적 포화도

충남에 출점한 대형마트의 경우 1개 점포가 서비스하는 인구수는 전국 평균과 유사하나 단위 영업면적당 인구수는 평균을 상당부분 상회, 점포당 평균 매장면적은 하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 밀착형 매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천안의 경우는 점포수와 영업면적이 각각 전국평균의 32%와 20% 상회하고 있어 대형마트 상업시설이 상대적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다. 기업형 SSM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충남에 상대적으로 적게 출점되었고 매장면적은 상대적으로 커서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한

지역에 대체 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천안의 경우는 기업형 SSM도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규모 및 밀집도 비교

구 분	대형마트(2012.9월 기준)					
	개수 (개)	영업면적 (㎡)	인구수 (2010 총조사인구)	인구수/개 수(개)	인구수/영업 면적(㎡)	단위면적 (㎡/1개)
전 국	460	5,245,389	48,580,293	105,609	9.26	11,403
7광역시	202	2,357,187	22,378,352	110,784	9.49	11,669
9개도	258	2,888,202	26,201,941	101,558	9.07	11,195
충남도	20	170,260	2,028,002	101,400	11.91	8,513
천안시	8	77,220	574,623	71,828	7.44	9,653

자료 : 통계청, KOSIS ; 2012유통업체연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기업형SSM 규모 및 밀집도 비교

구 분	기업형SSM(2012.5월 기준)					
	개수 (개)	영업면적 (㎡)	인구수 (2010 총조사인구)	인구수/개 수(개)	인구수/영업 면적(㎡)	단위면적 (㎡/1개)
전 국	1,203	880,084	48,580,293	40,383	55.20	732
7광역시	567	385,767	22,378,352	39,468	58.01	680
9개도	636	494,317	26,201,941	41,198	53.01	777
충남도	33	32,832	2,028,002	61,455	61.77	995
천안시	18	13,469	574,623	31,924	42.66	748

자료 : 통계청, KOSIS ; 2012유통업체연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3.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출점 영향분석²⁾

1) 대형소매점 출점/미출점 상권 유통산업 비교분석

대형마트가 출점한 상권과 미출점 상권의 주요 산업 및 경영변수를 비교·분석해 보면 음식료품과 종합소매업의 경우 사업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는 종사자수도 미출점 상권의 약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출점이 상권구조에 큰 변혁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액의 경우 출점지역이 모

2) 2001년과 2005년 도소매업총조사 자료를 비교분석 하였음.

든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나 특히 종합소매업의 경우 미출점 지역의 약 3.5배로 대형마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영업이익이 낮고, 낮은 업종은 영업이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SSM의 경우는 음식료품의 경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출점지역이 미출점 지역의 각각 약 53%와 56%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양 상권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매출액은 음식료품을 제외하고 출점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영업이익은 반대로 나타남으로 출점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되고 경쟁정도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소매점 출점/미출점 상권간의 소매업 비교분석

대형마트05		출점 상권	미출점 상권	비율	SSM05		출점 상권	미출점 상권	비율
시군수		2	14	0.142	시군수		6	10	0.6
평균업체수		3	0	-	평균업체수		1.33	0	-
사업 체수	종합소매	0.0075	0.0107	0.7024	사업 체수	종합소매	0.0101	0.0104	0.9635
	음식료품	0.0054	0.0106	0.5132		음식료품	0.0064	0.0120	0.5341
	의약품	0.0022	0.0026	0.8332		의약품	0.0025	0.0026	0.9433
	섬유용품	0.0079	0.0068	1.1630		섬유용품	0.0070	0.0069	1.0260
	가전용품	0.0032	0.0028	1.1333		가전제품	0.0028	0.0029	0.9658
	기타소매	0.0093	0.0093	0.9996		기타소매	0.0091	0.0094	0.9630
종사 자수	종합소매	0.0215	0.0203	1.0554	종사 자수	종합소매	0.0214	0.0199	1.0753
	음식료품	0.0096	0.0173	0.5514		음식료품	0.0110	0.0196	0.5599
	의약품	0.0052	0.0059	0.8862		의약품	0.0061	0.0056	1.1015
	섬유용품	0.0127	0.0102	1.2557		섬유용품	0.0107	0.0103	1.0381
	가전용품	0.0075	0.0055	1.3525		가전제품	0.0059	0.0057	1.0316
	기타소매	0.0168	0.0159	1.0549		기타소매	0.0159	0.0161	0.9857
매출 액	종합소매	583,1380	163,9963	3.5558	매출 액	종합소매	270,5691	183,8809	1.4714
	음식료품	94,7324	93,3729	1.0146		음식료품	82,8153	99,9794	0.8283
	의약품	226,4649	184,4289	1.2279		의약품	203,2187	181,5622	1.1193
	섬유용품	107,2008	76,5582	1.4003		섬유용품	99,7407	68,7772	1.4502
	가전용품	361,6492	206,3818	1.7523		가전제품	304,2182	178,7334	1.7021
	기타소매	111,0409	85,0665	1.3053		기타소매	100,5434	80,9752	1.2417
영업 이익	종합소매	0.1333	0.1356	0.9831	영업 이익	종합소매	0.1500	0.1214	1.2363
	음식료품	0.2510	0.2456	1.0220		음식료품	0.2488	0.2450	1.0158
	의약품	0.1764	0.1982	0.8901		의약품	0.1942	0.1955	0.9937
	섬유용품	0.2471	0.2551	0.9689		섬유용품	0.2379	0.2675	0.8893
	가전용품	0.1411	0.1195	1.1810		가전제품	0.1136	0.1342	0.8469
	기타소매	0.2377	0.2326	1.0222		기타소매	0.2263	0.2387	0.9480

주1: 숫자는 1세대당 각 소매업 업체, 종사자, 매출, 영업이익의 임.

주2: 비율은 2005년에 출점지역과 미출점 지역을 비교하여 분석함.

2) 대형소매점 신규출점 전·후 유통산업 비교분석

2001년에 대형마트 미출점 상권에서 출점상권으로 전환지역(서산)의 경우 모든 업종의 사업체수와 종합소매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특히 음식료품 업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감소하여 대형마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에 점포당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의 진출이 지역 상권을 경쟁적 상권으로 유도되어 업체들이 효율적인 유통업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분석된다.

기업형 SSM의 신규 출점의 경우에 일부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아산, 예산, 보령, 당진인데 SSM이 출점함에 따라 기존에 유출된 구매력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타 업종에도 영향을 주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대형소매점 신규출점 전·후 소매업 비교분석

대형마트		2005 출점	2001 미출점	비율	SSM		2005 출점	2001 미출점	비율
시군수		1	1	1	시군수		4	4	1
평균업체수		1	0	-	평균업체수		1	0	-
사업 체수	종합소매	0.0079	0.0094	0.8431	사업 체수	종합소매	0.0108	0.0079	1,3709
	음식료품	0.0071	0.0104	0.6852		음식료품	0.0073	0.0047	1,5608
	의약품	0.0022	0.0023	0.9479		의약품	0.0025	0.0016	1,5455
	섬유용품	0.0090	0.0099	0.9062		섬유용품	0.0069	0.0047	1,4805
	가전용품	0.0030	0.0040	0.7655		가전제품	0.0027	0.0022	1,2367
	기타소매	0.0096	0.0099	0.9685		기타소매	0.0091	0.0062	1,4760
종사 자수	종합소매	0.0201	0.0162	1,2438	종사 자수	종합소매	0.0214	0.0136	1,5796
	음식료품	0.0125	0.0172	0.7254		음식료품	0.0125	0.0078	1,5923
	의약품	0.0052	0.0056	0.9373		의약품	0.0066	0.0035	1,8986
	섬유용품	0.0148	0.0156	0.9437		섬유용품	0.0106	0.0070	1,5115
	가전용품	0.0068	0.0088	0.7767		가전제품	0.0054	0.0047	1,1388
	기타소매	0.0173	0.0175	0.9906		기타소매	0.0158	0.0105	1,5104
매 출 액	종합소매	433,9225	147,5638	2,9406	매 출 액	종합소매	172,9010	157,7620	1,0960
	음식료품	88,8384	72,7303	1,2215		음식료품	80,4341	61,3829	1,3104
	의약품	191,5676	126,0431	1,5199		의약품	186,6788	133,7263	1,3960
	섬유용품	103,1153	77,8114	1,3252		섬유용품	100,4215	74,2255	1,3529
	가전용품	299,9281	207,7172	1,4439		가전제품	267,2678	168,3823	1,5873
	기타소매	99,9855	74,1501	1,3484		기타소매	99,0236	76,9307	1,2872

대형마트		2005 출점	2001 미출점	비율	SSM		2005 출점	2001 미출점	비율
영업 이익	종합소매	0.0842	0.1393	0.6046	영업 이익	종합소매	0.1455	0.1364	1.0663
	음식료품	0.2296	0.2212	1.0378		음식료품	0.2432	0.2566	0.9480
	의약품	0.1640	0.2413	0.6796		의약품	0.1845	0.2480	0.7440
	섬유용품	0.2325	0.2995	0.7762		섬유용품	0.2262	0.2765	0.8180
	가전용품	0.1247	0.2291	0.5441		가전제품	0.1100	0.2476	0.4442
	기타소매	0.2195	0.2734	0.8025		기타소매	0.2504	0.2651	0.9445

주1: 숫자는 1세대당 각 소매업 업체, 종사자와 업체당 매출, 영업이익을 임.

주2: 비율은 2001년에 미출점 지역이었으나 2005년에 출점한 지역의 변화를 분석함.

주3: 이 지역은 대형마트의 경우서산시이고, SSM의 경우 아산, 예산, 보령, 당진임.

반면에 천안은 이미 대형마트와 SSM이 상당수 출점해 있는 경우인데 신규출점이 음식료품 업종에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30%이상 감소하고 매출액도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적정수의 대형소매점 출점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 할 수도 있지만 과다한 출점은 중소유통 중심의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형소매점 출점에 따른 천안 상권변화 분석(2001-2005)

구분		2005 상권			2001 상권			비율	
대형마트수		5			4			1.25	
SSM수		3			2			1.50	
사업 체수	종합소매	0.0071	0.0074	0.9614	매 출 액	종합소매	732,3535	703,3941	1,0412
	음식료품	0.0037	0.0054	0.6978		음식료품	100,6263	115,8395	0.8687
	의약품	0.0022	0.0022	0.9864		의약품	261,3622	212,4352	1,2303
	섬유용품	0.0069	0.0073	0.9357		섬유용품	111,2863	120,3827	0.9244
	가전용품	0.0034	0.0037	0.9137		가전용품	423,3703	287,5074	1,4726
	기타소매	0.0090	0.0099	0.9103		기타소매	122,0963	133,0048	0.9180
종사 자수	종합소매	0.0228	0.0225	1,0168	영업 이익	종합소매	0.1624	0.1261	1,2876
	음식료품	0.0066	0.0095	0.6962		음식료품	0.2698	0.2542	1,0616
	의약품	0.0051	0.0061	0.8454		의약품	0.1856	0.2238	0.8291
	섬유용품	0.0107	0.0122	0.8822		섬유용품	0.2607	0.2189	1,1909
	가전용품	0.0081	0.0083	0.9771		가전용품	0.1527	0.1640	0.9313
	기타소매	0.0163	0.0200	0.8170		기타소매	0.2527	0.2375	1,0641

주1: 숫자는 1세대당 각 소매업 업체, 종사자, 매출, 영업이익 임.

주2: 비율은 천안시의 2005년과 2001년 소매업 상황을 비교 분석함.

4. 충남지역 대형소매점 영업활동 조정 효과분석

1) 대형소매점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에 따른 소비자분석³⁾

대형마트 출점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는 인근할인점에서 구매할 확률이 40%, 타 지역의 대형마트로의 전환은 17% 그리고 인근 슈퍼의 순으로 구매하는 점포를 스위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형마트 출점을 규제할 경우 상당부분 대형마트의 잠재적 구매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타 점포로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출점 규제 시 구매점포 변경

구분	타 지역 대형마트	인근 할인점	인근 재래시장	인근 슈퍼마켓	인근 상가	백화점	합계
빈도	50	120	17	44	33	36	300
비율(%)	17	40	5	15	11	12	100

주: 인근할인점은 근린상권의 중소유통이 운영하는 대형슈퍼를 칭함.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할 경우 쇼핑시간을 바꾸어 기존 대형마트를 이용할 확률이 40%이고 다른 소매점으로 스위칭 할 확률이 60%로 조사되었다. 이중 대형마트 구매력이 영업시간 규제 후 인근할인점으로 이동할 비중은 38.4%, 인근 슈퍼는 10.2%로 나타나,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도 동 시간에 영업시간 규제를 가정하면 출점규제보다 지역상권 보호효과가 높으나 재래시장과 동네슈퍼의 중소유통 보호효과 보다는 그 효과가 규모가 있는 독립점포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독립점포도 자영업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소매점 매출의 일부가 자영업 매출로 전환되는 것은 분명하다.

영업시간 규제 시 구매행태 변화

구분	쇼핑시간대 변경	다른 소매점 이용	합계
빈도	121	179	300
비율(%)	40	60	100

3) 원종문 외1, 기업형 SSM 진출 관련 대중소 유통 상생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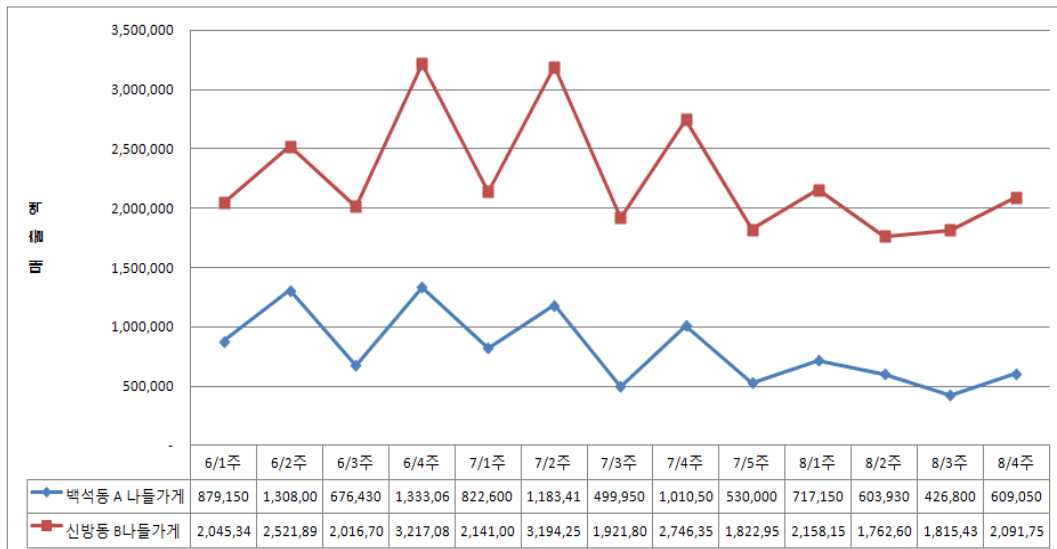
영업시간 규제 시 구매점포 변경

구분	재래시장	백화점	인근할인점	슈퍼마켓	인근상가	합계
빈도	7	12	114	30	16	179
비율(%)	4	6	64	17	9	100

2) 대형소매점 의무휴무가 나들가게 매출에 미친 영향 사례4)

천안경실련에서 대형소매점 의무휴일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2개 나들가게의 POS 데이터 중 매출자료를 분석해 보았는데 아래 A마트(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의 거리 : 120m, 홈플러스 신방점과의 거리 : 700m에 위치)와 B마트(SSM 롯데슈퍼와의 거리 : 240m에 위치)의 매출현황을 보면 그 규제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천안시 나들가게 일요일 매출현황



주: 대형소매점의 의무휴무는 매월 2,4째주 일요일이었음.

4) 자료: 천안경실련 사례조사.

5. 충남지역 상권관리 방안

충남지역의 경우는 천안을 제외하면 대형소매점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붕괴가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권 내 구매력이 작아 대형마트가 출점하지 않은 지역 다수는 규모가 있는 SSM이 출점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에 일률적인 대형소매점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천안은 대형소매점의 과다 출점과 더불어 과잉경쟁이 감지되고 있어 상당부분의 영업활동 규제가 필요한 반면에 그 외 지역은 신규출점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형소매점 영업시간 규제함에 있어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충남 천안지역은 규제함으로 중소유통의 매출증대 효과가 분명히 있음을 소비자조사와 나들가게 POS 데이터 사례분석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SSM출점의 지역상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점포로 골목상권 출점을 지양하고 대형마트가 출점할 수 없는 지역에 대형마트 역할을 대체하는 중간규모의 점포로 출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선도하는 2개의 기업이 대전과 수원에 대규모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지역은 천안과 부여지역에 아울렛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규모나 접근성에 있어서 대전과 수원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복합쇼핑몰과 해외브랜드 아울렛은 분명히 지역을 초월한 광역상권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나 직·간접적으로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충남지역에 경쟁력 있는 상업시설 유치를 통한 건전한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적절한 규제가 유기적으로 상호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참고문헌

- 원종문 외1, 『기업형 SSM 진출 관련 대중소 유통 상생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9.12.
- 원종문, 『SSM 출점확산에 대응한 중소슈퍼마켓의 경쟁력강화방안』 지식경제부, 2010.01.
- 원종문, 『대형소매점 출점이 중소유통 및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회사무처, 2009.12.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통계』 2011.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1 유통업체연감』 2012.
- 통계청, 『2010년 기준 주민등록 한국인인구』 2011.

중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계획》과 충남도의 대응 과제

박 경 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산둥성의 경제적 현황

- 산둥(山東)성은 중국 동부 연해, 황하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2011년 기준 9,637만 명, 면적은 15.7만km²(우리나라의 약 1.6배)이며 전체 17개 시와 140개 현(현급 시, 구)으로 구성됨. 지리적, 경제적, 역사·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많아 현재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류가 이뤄지는 지역임

산둥(山東)성의 위치도



사진자료: 百度地圖(map.baidu.com).

- 2010년 기준 산둥성의 경제규모는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978년 이후 2010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음
- 2011년 GRDP는 4조5,429억 위안이며, 그 중 2차 산업의 비중은 52.9%이고 3차 산업의 비중은 38.3%로 제조업이 서비스분야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산둥성 및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2011년)

항목(단위)	산둥성	증가율	중국	증가율	중국 내 비중(%)
면적(만km ²)	15.7	-	960.0	-	1.6
인구(만 명)	9,637.3	-	134,735	-	7.2
GRDP(억 위안)	45,429.2	10.9	471,564	9.2	9.6
1차 산업	3,973.9	4.0	47,712	4.5	8.2
2차 산업	24,037.4	11.7	220,592	10.6	10.9
3차 산업	17,418.0	11.3	203,260	8.9	8.6
1인당 GRDP(위안)	47,260	9.9	35,083	8.7	-
수출입총액(억 달러)	2,359.9	24.8	36,421	22.5	6.5
수출액	1,257.9	20.7	18,986	20.3	6.6
수입액	1,102.0	29.8	17,435	24.9	6.3
외국인직접투자(억 달러)	111.6	21.7	1,160	9.7	9.6
농민 평균 순소득(위안)	8,342	19.3	6,977	17.9	-
도시화율(%)	50.9	-	51.3	-	-

주: 표에서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山東省統計局(2012), 『2011年山東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國聯統計局(2012), 『中和人民共和國2011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이상훈·오중혁(2012.8),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산둥성」, 『중국 성(省)별 동향브리핑』 Vol.3 No. 13, p4의 표 일부 재인용.

- 산둥반도는 환보하이(環渤海)지구와 창장(長江)삼각주지구의 중요 결합부, 황허(黃河)유역지구의 최단 출해(出海)통로, 동북아경제권의 중요 지역으로 해양경제발전의 기초가 튼튼해 황허와 보하이의 과학적 개발, 연해지구 개혁·개방의 심화, 중국 해양경제 종합 경쟁력 제고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

2) 계획의 추진 배경

- 중국은 2003년부터 국가차원의 해양경제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음. 그 후 2009년 4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산둥성 시찰 시 지시로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계획: 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展規劃》이 본격 착수됨

- 후진타오 주석은 산둥성 시찰 중에 국토의 전략 배치 차원에서 “해양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해양자원을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해양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둥반도남색경제구(山東半島藍色經濟區)를 건설할 것”을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다시 산둥성 시찰 중에 산둥반도 남색경제구를 철저히 건설할 것을 강조함

- 2010년 1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무원에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계획》과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개혁발전 시범공작방안》을 보고한 후, 2011년 1월 국무원은 1호 문건을 통해 본 계획의 비준을 통보함
 - 이는 “12·5계획(2011-2015)” 중 가장 먼저 중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발전전략이며 해양경제를 주제로 하는 중국의 첫 번째 지역발전전략임
 - 『2010년 중국 해양경제 통계 공보』에 따르면 당해 중국 해양산업 총생산액은 3조 8,439억 위안이며, 이는 중국 전체 GDP의 9.7%에 해당함(노수연 등, 2011)

3) 계획의 범위

- 계획의 범위는 산둥성 전 해역과 칭다오(靑島), 둥잉(東營), 옌타이(煙台), 웨이팡(濰坊),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등 6개 시와 빈저우시(濱州市)의 우디(無棣), 잔화(沾化) 등 2개 연해현(沿海縣)임
 - 해역 면적은 15.95만km², 육지 면적은 6.4만km²임. 2009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3,292만 명, 일인당 지역생산총액은 5만138위안임. 산둥성 중심지역이 해양경제발전의 지탱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둥성의 기타 지역은 계획의 연계지역으로 포함됨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도(2011-2020)



2. 계획의 발전 전략과 목표

1) 계획의 전략

- 중국정부는 ▲해양산업, 해양과학기술, 개혁·개방과 생태환경 방면 등에서 산둥반도의 비교우위에 근거하고, ▲중국의 빠른 발전방식의 전환과 연해 공간배치의 최적화 등의 전략요구에 부응하며,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을 과학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중국 해양경제발전에 대한 선두 시범작용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함
 - 첫째, 국제경쟁력이 우수한 현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건설함: 첨단기술, 첨단제품, 첨단산업을 유치해 항구, 지구, 도시와 브랜드의 견인작용을 강화하고 해양 하이테크산업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현대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함
 - 둘째, 세계 선진수준의 해양과학기술교육 핵심구를 건설함: 교육 현대화수준을 제고하고 각 유형의 인재배양을 확대하고 인재장려제도를 마련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해양과학기술 교육인재기지를 건설함
 - 셋째, 국가 해양경제 개혁·개방 선행구를 건설함: 해양경제기술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한·일 지역경제협작 시험구를 건설하며, 동북아 국제항운 종합허브, 국제물류센터, 국가 중요 원자재 교역 및 가격형성센터를 건설해 경제세계화에 참여하는 중국의 중요 기지를 건설함
 - 넷째, 전국 중요 해양문명시범구를 건설함: 해양 환경보호와 오염배출을 통제해 사람과 바다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범구와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해양 여행목적지를 건설함

2) 계획의 발전 목표

- 2015년까지의 발전 목표
 - 현대 해양산업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종합 경제실력을 더욱 강화함
 - 발전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의 조정을 통해 실질단계로 나아가 해양경제 종합 효익을 현저히 제고함
 - 해양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해 자주적 혁신능력을 대폭 향상시킴
 - 단위지구 에너지 소비 총량과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해륙생태건설과 오염통제에서 명확한 성과를 거두며, 환경의 질을 확실히 개선함

- 동북아 국제항공운수의 종합 허브와 국제물류센터의 지위를 현저히 높이고, 대외개방 국면에서 해양경제를 부단히 개선함
- 인민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소강사회(小康社會: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회)의 전체적 요구를 앞서 달성함
- 해양 총생산액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지역 내 연구와 시험발전 경비가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달하며, 해양과학기술 진보 공헌율은 약 65%까지 끌어올리고, 일인당 평균 지역 생산 총액은 8만 위안을 초과하며, 도시 주민 일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과 농민의 일인당 순수입은 연평균 10% 증가하고 도시화 수준은 65%에 달함

○ 2020년까지의 발전 목표

- 해양경제가 발달하고 산업구조가 최적화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남색경제구를 건설해 현대화를 실현함
- 해양경제의 종합실력과 경쟁력이 전국 수위를 점하고, 세계 선진수준을 갖춘 해양과학기술 교육인재센터를 건립하며, 경제개발 수준을 대폭 제고해 경제세계화 발전에 참여하는 중국의 중점지구가 됨
- 해양생태문명 건설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해양생태환경의 질을 부단히 개선해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함
- 해양생산 총액은 연평균 12% 이상 증가하고, 일인당 지구 생산 총액은 13만 위안에 도달하며 도시화 수준은 약 70%에 도달함

3) 계획의 발전 산업

- 현대 해양산업체계의 건설은 산둥반도 남색경제구의 핵심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임.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체적인 산업 발전 전략은 아래와 같음
- 첫째, 해양 제1산업 발전을 가속화함
 - 현대수산양식업: 1) 룡청(榮成), 창다오(長島), 평라이(蓬萊), 라이저우(萊州), 자오난(膠南) 등의 해역을 중심으로 생태저탄소 양식을 추진하기 위해 총규모 300만 무(1畝=666.7㎡) 이상의 연근해 비교우위 해산물 양식기지를 건설함. 2) 둥잉(東營), 웨이팡(濰坊), 빈저우(濱州) 등의 연해지구를 중점으로 200만 무 표준화 생태건강양식기지를 건설함. 3) 라이저우(萊州), 윈딩(文登), 룡청(榮成), 우디(無棣), 르자오(日照) 동항구, 창이(昌邑), 서우광(壽光) 등 연해지구를 중점으로 우수 해수어공장화 양식기지와 현대어업표준구를 건설함

- 어업중식업: 라이저우만(萊州灣) 동부, 마오다오군도(廟島群島), 콩통열도(崆峒列島), 룡청(榮成), 라오산(嶗山), 지모(即墨) 근해, 하이저우만(海州灣) 북부해역 등에 전국 중요 해양목장시범구를 건설함
- 현대원양어업: 2015년까지 원양어업 연간 생산량, 원양어선 수량은 각각 40만 톤과 600척 정도이며 2020년까지 각각 50만 톤에서 650척 정도로 증가함
- 해안특색농업: 해안지구의 특색에 맞는 시설채소, 고품질 과일, 특색 작물 등 고효율농업을 발전시킴. 무공해 농산품, 녹색식품, 유기식품인증을 추진하고 브랜드제품을 육성하며 연해농업 휴양관광루트를 건설함

○ 둘째, 해양 제2산업 발전을 최적화함

- 해양생물산업: 해양생물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 확산, 해양약물, 해양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해양생물신소재, 해양양식 우수 종묘 등 시리즈 제품을 중점 개발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집단을 육성하고 엔타이, 웨이하이, 르자오, 웨이팡에 국내 일류의 해양생물산업기지를 건설하며, 칭다오를 국제일류의 해양생물연구개발과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 해양장비제조업: 조선, 유람선과 우편선 제조, 해양석유가스 개발 장비, 임해기계장비, 해수담수화장비, 해양전력장비, 해양측정기기장비, 핵발전장비, 환경보호장비와 소재제조산업 등을 중점 발전시키고 국가해양설비검측센터를 건설함. 또한, 동잉, 웨이팡, 웨이하이, 르자오, 빈저우를 전문적인 현대해양장비 및 부품제조업기지로 만들고, 칭다오, 엔타이를 국제경쟁력이 있는 종합적 해양장비제조업기지로 건설함
- 해양에너지광산업: 조석에너지, 풍랑에너지, 해류에너지 등 해양에너지 발전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해양에너지원 이용 시범 사업을 실시함. 칭다오를 중심으로 저비용 해조류 정유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적시에 해양조류생물 에너지원과 비식량 연료 에탄올사업을 실시함.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해저매탄과 금광 등 자원의 탐색과 개발을 강화하고, 중요 해양자원에 대해 D/B를 구축함
- 해양공정건축업: 종합성 설계집단과 대형 전문 시공집단을 설립하고 국제경쟁력을 지닌 용두기업(龍頭企業: leading company)을 육성함. 칭다오, 르자오, 엔타이 등을 전국 중요 해양공정건축업기지로 건설함
- 현대 해양화학공업: 해양 기능성 재료, 해수담수화 신소재, 해양고분자재료 등 신제품을 중점 개발하고 칭다오, 엔타이, 웨이팡, 웨이하이 등을 신소재산업기지로 건설함
- 해양수산제품 심가공업: 신선, 냉장 등 수산식품과 해양보건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해산제품 심가공 수준을 제고하며 용두기업을 적극 지원함. 엔타이, 칭다오, 르자오, 웨이팡 등에 수산제품 심가공기지를 건설함

○ 셋째, 해양 제3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 해양운수물류업: 현대 물류단지와 주요 상품집산지를 계획해 건설하고, 칭다오, 르자오, 옌타이, 웨이하이를 4대 임해물류센터로 건설하며, 칭다오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국제물류센터를 건설함
- 해양문화관광업: 해양적 특색을 강화하고 문화, 체육, 여행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중요 해양문화와 체육산업기지를 건설해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연해관광목적지로 발전시킴
- 연해금융서비스업: 국내외 금융기구과의 업무 협력과 주주권 합작을 강화하고 금융기구 법인 본사, 지구 본사와 결제소의 유치를 가속화함
- 연해상무서비스업: 해양경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소프트웨어정보, 창의설계, 중개서비스 등 신형 서비스업종을 적극 발전시키고 상무유통업을 한 단계 도약시킴

4) 우대 정책

○ 재정세수정책

- 중국정부가 주도해 신흥 해양 전략산업의 발전에 우혜정책을 제정해 남색경제구 건설에 지원함. 2011년 산둥성 재정 중 10억 위안을 전문사업 자금으로 배분을 했고, 지구 내 7개 시에서 공동으로 10억 위안을 전문사업 자금으로 배분함. 이후 산둥성과 각급시는 매년 전문 자금을 점차 늘려 본 사업에 투입할 계획임

○ 투자융자정책

- 은행업 등 금융기구를 유치해 신용대출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체계, 금융업무, 금융시장, 금융개방 영역 등의 개혁과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선박, 해역사용권 등에 대한 담보대출을 적극 전개함. 중국 내외 금융기업이 법에 근거해 지구 내 설립되는 것을 적극 지원함
- 신행 농촌금융기구와 소액대출회사를 합리적으로 계획해 배치하고 농가소액신용대출과 농가연대대출제도를 정착시킴
- 해양상품국제교역센터를 건설하고 전자상거래를 적극 전개함. 국제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고 저탄소해양경제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 해역, 해도(海島)와 토지정책

- 정부는 해역사용금 분배에서 산둥성에 혜택을 주고 양식을 위해 바다를 이용할 경우 법에 따라 해역사용금을 감면함. 또한 토지이용계획 차별화 관리를 실행하고 중요 건설프로젝트, 특히 미이용 용지의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국가는 토지분배계획에서 혜택을 제공함

○ 대외개방정책

- 지구 내 기업의 수출입과 국외 투자합작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빠르고 효율이 높은 역내 지원과 역외 서비스체계를 구축함
- 청다오와 옌타이가 해관관리감독, 외환금융, 검역 등의 방면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국국적의 선박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표준화체계와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및 검역, 시장개척 등에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국가급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시범구를 설립함

3.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건설 의의와 전망

- 중국정부는 2003년부터 국가발전전략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양경제와 해양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국가의 신성장·신동력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수립함. 이는 자원 고갈과 미래 에너지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양에서 돌파하고자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국무원은 2003년에 『전국 해양경제 발전 계획』을 비준하였고, 2008년에는 『국가 해양산업 발전 계획 강요』를 비준해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경제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
 - 자료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해양경제는 제11차 5개년 계획(2006-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이상훈·오종혁, 2012)
-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건설>을 통해 산둥성을 동북아시아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며 이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 혹은 한·중 자유무역의 선도구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임을 알 수 있음
 - 산둥성은 전국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3,345km이며, 해양산업 총생산액은 6,040억 위안(2009년 기준)으로 전국 해양산업 총생산액의 18.9%를 차지함. 특히 어업 생산액이 전국 최대 규모이며 해양염업, 해양에너지 등의 부가가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음(노수연 등, 2011)
 - 산둥성은 2012년 6월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지구 건설 특별회의>를 개최해 산둥성 남색경제구(藍色經濟區)의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지구> 조성 방안에 대한 간

담회를 가짐. 이는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둥반도 남색경제구에 건설되는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지구>가 향후 자유무역협정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음⁵⁾

- 중국정부는 또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기간 동안 산둥성뿐만 아니라 저장성(浙江)성, 광둥(廣東)성 등 3개 지역을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시범구로 지정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해양경제를 적극 육성할 계획임
 - 저장성은 해수담수화사업이 전국에서 1위이고 해운업, 조선업, 석유화학공업이 발달된 지역임
 - 광둥성은 교통운수업과 관광업이 특히 발달되어 있음. 타이완,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 국가 등 인근 지역 및 국가와 최대한 협력해 나가며 해양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한 3개 성(省)지역 이외에도 푸젠(福建)성, 장쑤(江蘇)성, 허베이(河北)성, 랴오닝(遼寧)성 등에서도 경쟁적으로 해양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며 해양경제 육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중국 3대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지역의 발전계획 비교

구분		산둥성	저장성	광둥성
계획 명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	저장성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계획	광둥성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계획
국가 비준 시기		2011. 1	2011. 3	2011. 7
계획 기간		2011-20년	2011-20년	2011-20년
계획 면적	해역면적	15만 9,500km ²	26만km ²	41만 9,000km ²
	육지면적	6만 4,000km ²	3만 5,000km ²	8만 4,000km ²
대상지역		칭다오, 동잉, 옌타이, 웨이팡, 웨이하이, 르자오 등 6개 시와 빈저우시의 2개 현	항저우, 닝보, 원저우, 자싱, 사오싱, 저우산, 타이저우시 등 7개 시	광저우, 선전을 포함한 14개 시
주요 해양산업		어업, 제염업, 해양플랜트, 전력산업 등 전국 1위	해운업 조선업(전국 3위), 석유화학공업(전국 4위), 해수 담수화(전국 1위)	교통운수업, 관광업, 석유화학공업 등
해양 관련 총생산액		6,040억 위안(2009년, 전국의 18.9%, 2위)	3,400억 위안(2010년)	8,291억 위안(2010년)

자료: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11), 『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展規劃』 등 자료; 오수연 등(2011.9), 「중국의 3대 해양경제 육성지역(산둥성, 저장성, 광둥성)의 비교 및 평가」, 『중국의 성(省)별 동향 브리핑』 Vol.2 No.22, p8. 12의 표를 참고해 재구성.

5) 『아주경제』 (2012.6.13), 「〈산둥성은 지금〉 韓中日 경제협력지구 본격 추진」.

4. 충남도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과제

1) 더욱 가중되고 있는 대중국 무역의존도

- 우리나라 대중국 무역 규모는 한·중 수교가 체결된 해인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10년 현재 1,884억 달러로 약 29.4배 증가함. 이는 미국과 일본의 교역량(1,827억 달러)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임
 - 1992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에서 중국과의 교역량 비중은 4.0%였음. 이는 미국과의 교역량 비중 23.0%, 일본과의 교역량 비중 19.6%의 합계에 비해 1/11에 불과함.
 - 하지만 2010년 교역량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에 중국과의 교역량 비중은 21.1%로 이는 미국과의 교역량 비중 10.1%, 일본과의 교역량 비중 10.4%를 합한 수치보다 0.6% 많은 수치임

한·중 간 무역 비중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

국가 \ 연도		1992	1995	2000	2005	2010
우리의 교역총액(A)		1,584	2,602	3,328	5,457	8,916
대중국 교역	교역액 (B)	64	165	313	1006	1884
	교역비중 (B/A)	4.0	6.4	9.4	18.4	21.1
대미국 교역	교역액 (C)	364	546	669	719	902
	교역비중 (C/A)	23.0	21.0	20.1	13.2	10.1
대일본 교역	교역액 (D)	311	497	523	725	925
	교역비중 (D/A)	19.6	19.1	15.7	13.3	10.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액은 1992년 27억 달러로 전체의 3.5%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1,168억 달러로 약 43.3배가 증가함. 이는 미국과 일본과의 수출액 합계(78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수치임
 -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총액 가운데 대중국 수출비중은 25.1%인데 반해 미국은 10.7%, 일본은 6.0%에 불과함. 이러한 추세는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우리나라와 산둥성 간 무역규모는 326억 달러로 1992년(4.7억 달러) 대비 약 69.5배 증가했으며, 산둥성은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에서 장쑤성, 광둥성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지역임(이영훈·오중혁, 2012)
 - 또한 산둥성은 2011년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대한민국 무역규모에서 수출은 장쑤성, 광둥성, 상하이시 다음으로 4위(174.9억 달러), 수입은 장쑤성 다음으로 2위(151.6억 달러)를 기록함
 - 한·중 간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상태이고 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충남의 전체 수출액은 600억 달러이며 이 중에서 대중국 수출액은 243억 달러로 약 40.5%를 차지함.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 24.2%보다 무려 16.3% 높은 수치임(김양중, 2012)
 - 더욱이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우리나라 전체(21.2%)보다 12.4% 높은 33.6%로 의존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중국의 해양경제 부상에 따른 충남도 차원의 전략 마련 필요

- 앞서 설명했듯 중국이 해양경제와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외 수출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면 한·중 간 교역에서 한국의 우위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추진 중인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요인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고 중국이 점차 산업고도화를 이뤄나갈 경우 우리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건설 등 중국 연해안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해양경제와 해양산업 발전 전략은 향후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향후 대응전략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미래 산업인 해양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해왔지만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해안지역 발전 전략과 해양산업 육성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해 이에 대응한 전략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임. 특히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발전전략 측면에서도 중국의 해양경제 및 해양산업 육성은 좋은 참고가 될 것임

- 둘째, 충남도는 태안반도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중국 산둥성과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내 큰 항구와 공항이 없어 교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수출산업과 물류의 이동이 활발한 경기도와 새만금 건설 등 향후 해양산업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는 전라도와 연계해 우리나라 해양경제 및 해양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앞서 설명했듯이 산둥성은 해양 관련 과학기술 발전과 한·중·일 자유무역 선도구역으로 육성하고, 저장성은 물류 분야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광둥성은 주변 지역과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3개 지역의 해양경제 발전 전략을 참고할 수 있음
- 셋째, 2013년 1월 1일부터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시대를 맞아 향후 충남 서북부지역과 충남도 서해안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됨. 내륙에서 해안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충남도가 향후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신동력산업인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둥성 등 중국 각 지역의 해양정책과 해양산업 발전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양중(2012.12),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충남리포트』 제74호, 충남발전연구원.
- 노수연 등(2011.9), 「중국의 3대 해양경제 육성지역(산둥성, 저장성, 광둥성)의 비교 및 평가」, 『중국의 성(省)별 동향 브리핑』 Vol.2 No.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영성·임영광(2011), 「경기도와 산둥성의 녹색경제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 2011-24, 경기개발연구원.
- 이상훈·오종혁(2012.8),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산둥성」,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Vol.3 No.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성호 외(201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산둥성의 역할 비교, 경기개발연구원.
- 외교통상부, 중국 관련 주요 통계(2010년 말 현재).
- KOTRA: www.globalwindow.org.
- 山東省人民政府: <http://www.sd.gov.cn/>
- 蓝色经济网: <http://www.blue-economy.cn/>
- 山東半島藍色經濟區辦公室: <http://www.sdlb.gov.cn/>



Chungnam Economic Trends

기업탐방



착한 도시락 ‘즐거운 밥상’

– 즐거운 밥상(<http://blog.naver.com/zlebabsang>)

지난 2005년 대한민국을 발각 뒤집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건빵 도시락’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사회 전반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전북의 한 지자체가 결식아동들을 위해 제공하던 도시락이 단가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찬에 건빵 4~5개를 포함시킨 이 사건은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한 ‘허접스레기 도시락’이라는 내용으로 각 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이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지자체는 한동안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됐다. 건빵도시락은 내용물만 부실한 것이 아니었다. 점심식사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할 도시락이 1~2시간 빨리 배달되거나 늦게 배달되는 일도 비일비재해 결식아동들이 찬 음식을 먹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부실도시락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고, 이어 검찰이 도시락 제작업체와 사업의 위탁을 맡았던 사회복지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주)즐거운 밥상 전경

* 주 : 기업탐방은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격월로 연재됩니다.

천안에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맛있고 즐거운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회적기업 ‘즐거운 밥상’이 있다. 건빵도시락 사건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인 ‘즐거운 밥상’이 만들어졌다.

즐거운 밥상 박찬무 대표는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락에 건빵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난 2005년 2월 자활근로 사업으로 급식사업단을 시작하게 됐다. 이것이 사회적기업인 ‘즐거운 밥상’의 시발점이다.



즐거운 밥상 박찬무 대표

“배고픔을 견디고 있는 결식아동들의 도시락에 건빵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맛 있는 도시락을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도시락 반찬으로 건빵을 넣는다는 것은 단가의 문제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박찬무 대표는 당시 사건을 접하고 자신이 받은 충격이 지금의 사회적 기업 ‘즐거운 밥상’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이들의 끼니가 어른들의 영리에 놀아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박 대표는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사업을 손수 벌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즐거운 밥상은 지난 2005년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사업을 위탁받아 출발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세업체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제법 규모를 갖춘 공장과 사무실을 갖춘 기업다운 외형을 갖췄다. 종사자들 모두가 아이들에게 건강을 선사하는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고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변의 동사무소에서 주문을 받아 인근지역에 제공하는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천안시내 전체 3,300여 명의 결식아동 중 1,70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에게 점심도시락을 제공할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다.

인구 55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인 천안은 한 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등에서 끼니를 제 때,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3,300여 명에 이른다.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를 포함하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적어도 천안지역에서 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걱정 없이 따듯한 밥상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즐거운 밥상’의 목표이다.

폭설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린 12월의 어느 날 충남 도내에서

도 모범적 사회적기업으로 손꼽히는 천안 ‘즐거운 밥상’을 찾았다. 회사를 방문했을 때 공장 앞에는 점심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5대의 승합차와 소형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이어 천안 각지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돌아온 차량들도 줄을 이어 도착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점심 전에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 새벽 4시 30분께부터 준비를 시작해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을 합니다. 1,700명의 도시락을 만들어 점심시간 전에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해야하기 때문이죠. 도시락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박 대표의 환한 얼굴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스러워 하는지를 읽을 수 있었다.

착한 기업 ‘즐거운 밥상’

인터뷰를 시작하고 처음 한 질문은 ‘즐거운 밥상은 어떤 회사였나’ 이었다. 박찬무 대표는 “즐거운 밥상은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운을 뗀 후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평생 일자리 제공과 지역 생산물을 재료로 활용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조그만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위탁업체이지만 ‘안전한 먹거리로 정성을 담아 만든 맛있는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착한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박찬무 대표의 어린 시절 삶은 그리 운택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한 생활고도 있었고 이에 따라 일주일 동안 같은 반찬으로 식사를 해야 했던 기억도 갖고 있다. 그는 “중학교 때는 졸업앨범도 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기억 때문에 즐거운 밥상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건빵 도시락’사건이 발생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즐거운 밥상’으로 꽃을 피웠다.

박 대표는 ‘즐거운 밥상’을 설립하기 전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자활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했다. “당시 2,500원이라는 재원으로 1식, 1국 4찬을 만들어 집집마다 배달했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민간업체가 맡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리기업이 도시락 배달 위탁

사업을 맡으면 양질의 도시락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창립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락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

자활근로사업에는 일정기간 최저임금정도의 인건비와 인건비 대비 약간의 사업비가 책정돼 저소득층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자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박 대표는 이 프로그램을 도시락사업과 연계시켰다. 일정기간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자활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이 사실이다.

박 대표는 도시락 사업을 시작할 당시 도시락 사업을 시작하면 추후 지원이 끊긴다고 해도 경쟁력을 갖춰 자활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즐거운 밥상이 만드는 착한 도시락



도시락을 만드는 즐거운 밥상 직원들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락은 한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분들의 접근이 쉬웠어요. 초반에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아이들의 도시락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영업과 홍보를 진행하면 추후 지원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 대표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다. 누구나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듯 즐거운 밥상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천안시 결식아동의 절반이 넘는 아이들의 점심도시락 배달을 위탁받았고, 한국마사회의 간식제공납품사업 위탁과 출장뷔페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됐다.

현재 ‘즐거운 밥상’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모두 34명. 정규직 근로자는 14명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시간근로자는 20명 정도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취업계층으로 구성돼 있고 시간근로자 중 7명도 취업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즐거운 밥상은 음식 조리부터 포장, 배달까지 직접 진행한다. 20여 명 정도의 시간근로자들은 포장과 배달 작업을 함께 한다.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조리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배달을 해서 제 시간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이다. 조리과 배달의 과정 중에서 어디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 제때 도시락이 공급되지 못하면 1,700여 명의 아이들이 굶게 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그래서 ‘즐거운 밥상’이 보유하고 있는 배달차량은 모두가 골목골목을 누빌 수 있는 소형승용 또는 승합차로 구성돼 있다. “배달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배달이 늦어지면 아이들은 기다리고, 배달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게 됩니다. 소형차들을 이용해 배달을 하는 것도 골목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하는 모습

골목으로 배달을 잘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굶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박 대표는 단 한 명의 수혜 어린이가 단 한 끼라도 굶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

‘즐거운 밥상’ 이 걸어온 길

지난 2005년 ‘즐거운 밥상’은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형태로 시작했다. 2007년 11월 도시락을 제공받는 곳과 지도감독을 하는 지자체 모두 ‘즐거운 밥상’의 도시락 품질에 만족해 납품량이 많아졌고,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후 2007년 12월, 천안시로부터 자활공동체로 인정을 받고 꼭 2년 뒤인 2009년 12월 늘어나는 주문량으로 현재의 위치로 이전을 하게 됐다. 일반사업자에서 근로하는 이들 모두가 동일한 ‘지분’을 출자해 2010년 8월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다. 특히 ‘즐거운 밥상’은 충남사회적기업 1호로 지정돼 충남도 최초의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

‘즐거운 밥상’ 의 최대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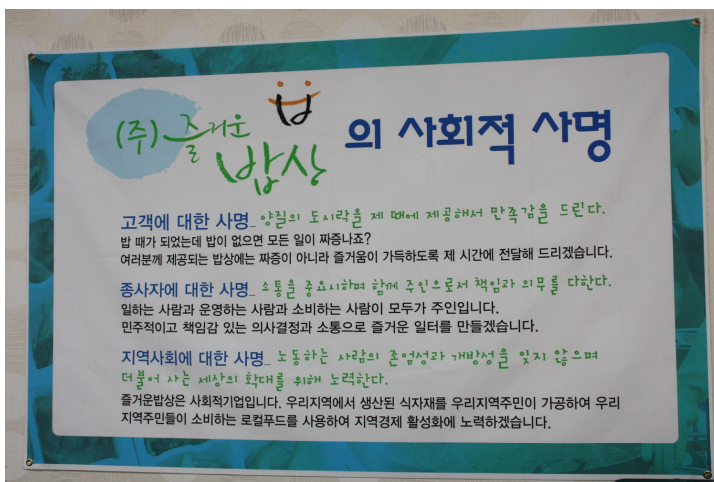
지난 2005년 설립된 이후 주위로부터 인정 받아가면서 승승장구 해 나가던 ‘즐거운 밥상’은 자리를 잡을 무렵 매출이 반 토막 나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천안시로부터 도시락 제공을 위탁받은 ‘즐거운 밥상’은 3,000원이라는 단가로는 양질의 도시락을 만들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천안시 주무부서에 3,500원으로 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3,500원으로 단가가 올랐지만 돌연 천안시에서 ‘즐거운 밥상’이 맡고 있는 천안 서북부권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내 경쟁입찰이 진행됐고 다른 업체에게 영업권을 빼앗기는 위기를 맞게 됐다.

단가가 3,000원이었을 때는 외면하던 업체들이 3,500원으로 현실화 되니 너나없이 뛰어들기 시작했다. 서북부권을 빼앗긴 이후 1년간 매출은 절반으로 하락했다.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즐거운 밥상’은 다시금 서북부지역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

게 됐다. 그 덕에 지금의 외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기업이다 보니 매출과 영리를 높이기 위해 전력하지는 않지만 당장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해결하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직원들과 숙의 끝에 해결책을 찾아냈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직원들에게 제시한 3가지 안은 ▲억울함을 호소하자 ▲우리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자 ▲높은 질의 도시락을 만들어 실력으로 승부하자 등이었다. 어려움에 봉착해 포기하고 싶었을 때 박 대표를 잡아준 것은 직원들이었다.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을 당시, 직원들은 ‘구조조정은 안 된다. 급여를 절반으로 낮춰도 되니 구조조정을 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힘을 실어줬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했을 당시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제시한 방안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선택해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죠. 지금 생각하면 직원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즐거운 밥상’의 목표



(주)즐거운 밥상의 사회적 사명

‘즐거운 밥상’의 목표는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평생직장을 만드는 일이다. “평생직장이라고 해서 이곳에서만 근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분들이 반찬가게나 택배회사 등 유사한 업종의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이 본인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 대표는 ‘즐거운 밥상’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활 능력을 찾고 자아를 실현해 나가기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는 사회적 기업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원이 끊겨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

력하라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인증제가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도 잘 쓰여지는지를 감시하기보다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부메랑을 막을 수 있고 무분별한 사회적 기업들이 폐지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밥상은 직원들의 행복과 아이들에게 정성스런 엄마 도시락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오늘도 아이들의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인터뷰 : 금강일보 유상영 기자]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10월)			소 비(10월)	물 가(11월)		대외거래(11월)		고 용(10월)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49.9	142.7	162.1	129.7	106.0	106.5	47,779	43,398	25,652	24,941	2.8
서울	82.2	84.0	199.2	131.6	105.8	106.7	5,102	10,435	5,217	5,029	3.6
부산	129.9	123.4	162.3	127.9	107.2	107.3	1,133	1,071	1,696	1,631	3.8
대구	134.2	136.9	153.5	112.7	107.0	106.9	589	310	1,240	1,203	2.9
인천	108.8	111.1	146.7	121.9	105.2	105.7	2,328	3,344	1,499	1,443	3.7
광주	132.7	127.9	106.8	137.6	105.5	106.1	1,376	387	709	694	2.1
대전	131.5	127.4	111.9	119.2	105.9	106.4	343	258	763	735	3.7
울산	125.1	128.9	125.0	125.3	106.5	106.4	8,644	7,474	559	547	2.2
경기	194.1	164.2	223.3	126.5	105.5	106.2	7,845	7,926	6,140	5,953	3.0
강원	132.8	130.9	214.9	165.3	105.8	106.3	208	117	728	716	1.7
충북	172.9	174.0	242.5	138.3	106.4	106.5	1,125	631	773	761	1.5
충남	220.7	205.2	203.0	177.8	106.5	106.8	5,745	2,875	1,117	1,097	1.8
전북	131.9	134.3	136.6	129.5	106.9	106.9	950	372	881	868	1.5
전남	135.3	131.9	130.4	137.0	106.8	106.8	3,448	4,034	942	931	1.2
경북	105.0	101.1	169.3	133.6	106.6	106.4	5,203	1,672	1,445	1,419	1.8
경남	136.1	140.6	127.0	141.0	105.5	106.2	3,728	2,475	1,634	1,609	1.5
제주	122.7	123.1	128.1	142.9	105.3	105.8	13	16	310	307	1.1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경제 동향(요약)



- 10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하락하였으며,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역시 전월보다 상승
 - 10월 충남경제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하락, 기업경기 지수는 장기간 기준치보다 낮아 기업경기 악화가 지속됨
- 산업활동은 전월대비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물가는 전월대비 하락세 지속, 수출과 고용은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임

경기

- 10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한 146.6을 나타냄
- 충남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보다 0.5p 하락함
- 12월 BSI는 제조업 하락, 비제조업 상승(제조업 73, 비제조업 66)
- 제조업 및 비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주된 기업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함
- 시장경기는 당월 체감지수는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익월 전망지수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대부분 하락하여 시장경기 활성화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산업활동

- 10월 광공업 생산지수 +0.7%(229.1), 출하지수 +1.2%(211.8) 전월대비 증가, 재고지수 -0.3%(201.1) 전월대비 감소
- 화학제품, 의약품, 금속가공 제품 등의 증가가 산업활동 증가에 기인

소비 및 물가

- 10월 대형소매점판매액 전월대비 5.5% 감소한 128,480백만원, 지수는 177.8을 나타냄
- 11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55,322대로 전월대비 0.3%(+2,694대) 증가
- 11월 소비자물가지수 106.8(-0.4%), 생활물가지수 106.5(-0.7%) 전월보다 하락

수출입

- 11월 수출은 전월대비 2.9% 감소(57억45백만달러, 반도체 -5.8%, 석유제품 -23.5% 등)
- 수입은 전월대비 20.0% 증가(28억75백만달러, 원유 +20.4%, 석유제품 +77.6% 등)
- 11월 무역수지는 28억70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6억80백만달러 감소)

고용

- 11월 경제활동인구는 전월대비 0.9% 감소, 경제활동참가율 61.4%로 전월대비 0.4%p 감소
- 취업자는 전월대비 1.1% 감소한 1,097천명(농림어업 185천명, 광공업 225천명, 건설업 70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204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27천명 등)
- 11월 실업률 1.8%로 전월대비 0.2%p 상승, 실업자 20천명으로 전월대비 8.7% 증가

금융

- 10월 금융기관 수신, 여신 모두 전월대비 증가세 기록
- 10월 금융기관 총 수신증감액 4,074억원, 여신증감액 4,101억원
- 11월 어음부도율 0.75%로 전월보다 0.50%p 상승
- 11월 부도금액 81억 3천만원으로 전월보다 51억 6천만원 증가

건설 및 부동산

- 11월 건축허가면적은 전월대비 36.7%(659,328㎡), 착공면적 47.9%(647,657㎡) 모두 증가
- 11월 토지거래는 13,281건으로 전월대비 14.6%, 면적 전월대비 13.5% 모두 증가
-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 111.6으로 전월대비 0.7%, 전세가격지수 116.9로 전월대비 1.6%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천안 동남구, 아산)

1.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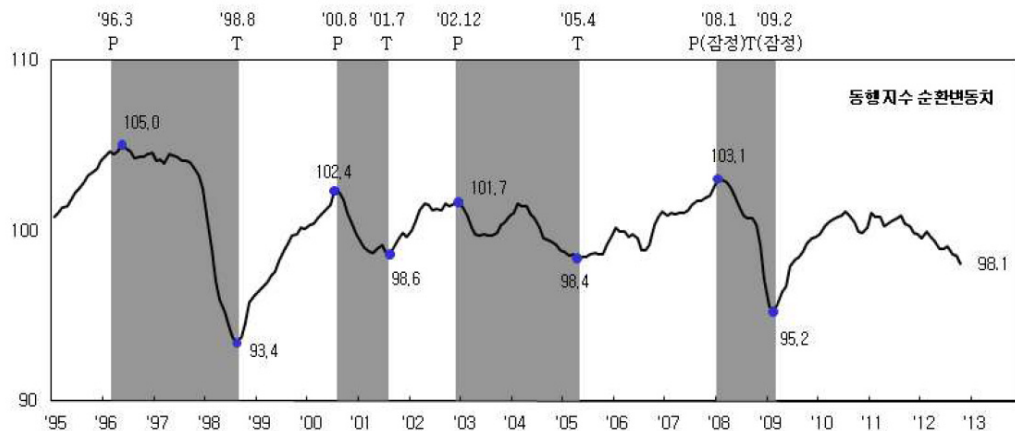
[전국 경기동향]

- 10월 동행종합지수는 비농림어업취업자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1% 하락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하락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추이

(2005=100)

구분	'1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 동행종합지수	143.3	143.6	143.5	144.1	145.0	144.9	145.5	145.4
· 전월비(%)	0.1	0.2	-0.1	0.4	0.6	-0.1	0.4	-0.1
○ 순환변동치	99.6	99.4	98.9	98.9	99.1	98.6	98.6	98.1
· 전월차(p)	-0.4	-0.2	-0.5	0.0	0.2	-0.5	0.0	-0.5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10월 선행종합지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은 감소하였으나, 코스피지수, 재고순환지표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1%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

선행종합지수 추이

구분	'1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 선행종합지수	140.6	141.2	141.3	142.8	143.7	144.0	143.7	143.9
· 전월비(%)	0.4	0.4	0.1	1.1	0.6	0.2	-0.2	0.1
○ 순환변동치	99.8	99.8	99.4	100.1	100.3	100.1	99.4	99.1
· 전월차(p)	-0.1	0.0	-0.4	0.7	0.2	-0.2	-0.7	-0.3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p 하락한 99.2를 나타냄
 - 9월 상승세로 반전하였던 동행종합지수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여 146.6을 나타냄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1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 동행종합지수	143.0	143.8	145.2	145.8	146.1	145.9	146.7	146.6
· 전월비(%)	-0.1	0.6	0.9	0.5	0.2	-0.1	0.5	-0.1
○ 순환변동치	99.6	99.7	100.2	100.3	100.1	99.6	99.7	99.2
· 전월차(p)	-0.6	0.1	0.5	0.1	-0.2	-0.4	0.1	-0.5

주 : p는 잠정치임.

- 10월 충남의 경기동향은 산업생산지수가 4개월, 전력사용량 역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수입액이 감소세로 반전하여 지역경기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비농가취업자수(+0.6%), 대형소매점판매지수(+0.5%), 수출액(+2.8%) 상승
 - 산업생산지수(-1.3%), 전력사용량(-0.7%), 수입액(-2.6%)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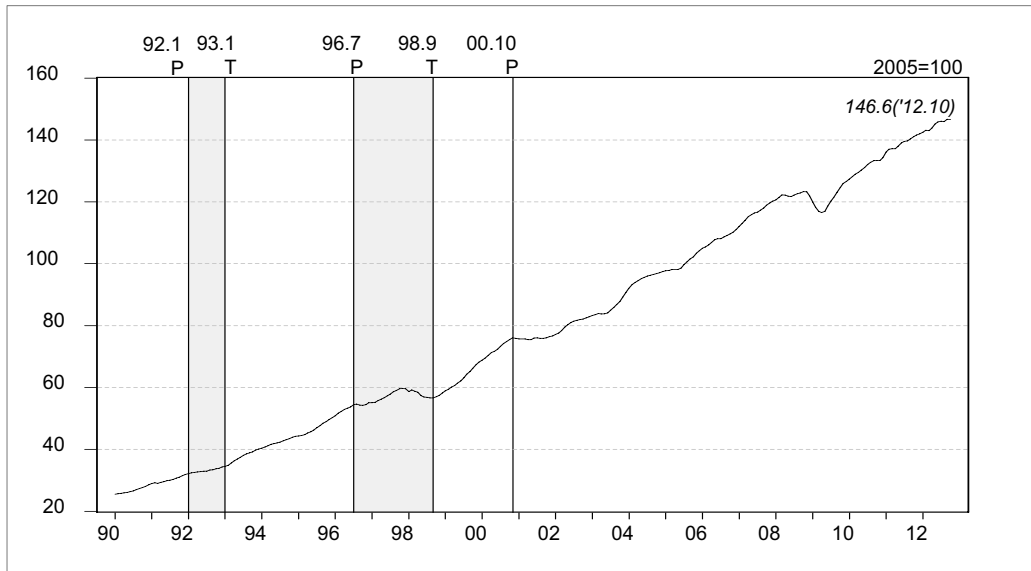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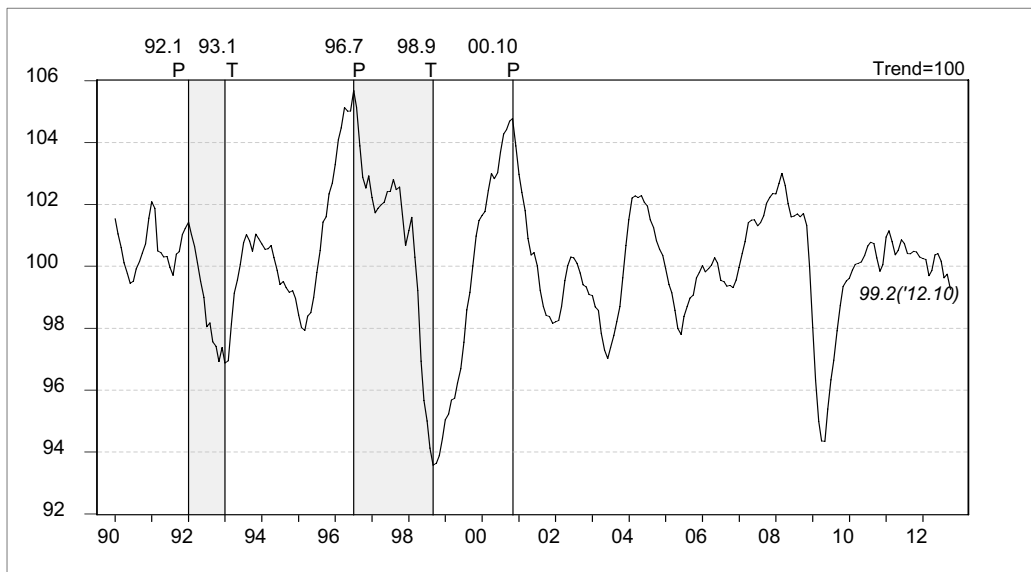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비농가취업자수	0.4	0.9	0.9	0.2	0.6	0.4	1.2	0.6
산업생산지수	0.0	0.0	-0.4	0.0	-0.8	-1.4	-1.3	-1.3
대형소매점판매지수	-8.2	-1.9	0.3	-0.7	1.2	0.8	3.2	0.5
전력사용량	1.9	1.7	1.8	1.7	0.5	0.8	-0.4	-0.7
수출액(실질)	5.2	3.5	4.6	4.4	0.7	-0.3	0.2	2.8
수입액(실질)	-2.6	0.4	2.5	-0.1	-1.5	-2.9	1.9	-2.6

주 :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12월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업황BSI, 자금사정전망BSI 모두 하락
 - 제조업 업황BSI는 73으로 전월(78)보다 5p 하락, 자금사정전망BSI 86으로 전월(88)보다 2p 하락
- 12월 비제조업 업황BSI 상승, 자금사정전망BSI 전월과 보합
 - 비제조업 업황BSI는 66으로 전월(65)보다 1p 상승, 자금사정전망BSI는 82으로 전월(82)과 보합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전망은 제조업에 비제조업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업경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지역내 제조업 및 비제조업체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주된 기업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기업경기 악화는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2.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84	84	79	82	81	78	73(67)	-5(-3)
매출	99	98	93	100	98	90	89	-1
생산	100	99	96	99	97	93	94	+1
신규수주	96	97	92	97	96	88	93	+5
채산성	90	89	85	87	88	86	89	+3
제품재고	106	106	107	103	100	102	105	+3
인력사정	92	92	93	90	92	92	95	+3
자금사정	95	95	94	92	93	88	86(80)	-2(-2)
외부자금수요	111	109	109	109	104	104	110	+6
자금조달사정	99	99	93	92	93	92	90	-2

주 : () 내는 전국 기준.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2.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76	70	66	62	70	65	66(65)	+1(-2)
매출	86	79	74	74	81	78	78(77)	0(-1)
채산성	84	83	81	76	83	86	89(78)	+3(-1)
인력사정	81	87	85	91	87	81	92(88)	+11(+3)
자금사정	94	90	88	85	86	82	82(79)	0(+1)
외부자금수요	108	109	110	111	111	112	113	+1
자금조달사정	95	91	89	88	94	91	90	-1

주 : () 내는 전국 기준.

$$BSI*(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시장경기 동향]

- 11월 충남지역 시장경기는 모든 체감지수가 전월보다 상승
 - 상승지수 : 업황(+5.8p), 매출(+17.6p), 마진(+9.8p), 매입원가(+19.3p), 상품판매가격(+16.3p), 자금사정(+5.9p), 구매고객수(+18.7p)
 - 11월은 날씨, 계절적 요인과 김장철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대비 업황이 호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산물 판매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12월 시장경기 전망은 매입원가와 상품판매가격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전월보다 하락
 - 상승지수 : 매입원가(+1.3p), 상품판매가격(+2.2p)
 - 하락지수 : 업황(-25.4p), 매출(-26.6p), 마진(-18.7p), 자금사정(-16.9p), 구매고객수(-33.7p)
 - 소비심리위축 및 추운날씨로 인한 계절적 요인, 유동인구 배후상권 인구 감소가 시장경기 전망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의류 및 신발에서의 하락이 높게 나타났다음

시장경기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12.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전망)
업황	전국	60.4	48.4	44.7	69.3	54.3	61.0	91.2
	충남	47.1	50.4	52.9	72.4	76.9	82.7	102.2
매출	전국	62.2	45.3	43.7	68.8	54.4	66.4	101.6
	충남	54.0	53.3	46.2	76.5	72.7	90.3	107.5
마진	전국	58.5	46.6	43.4	67.9	58.6	66.9	93.4
	충남	54.2	53.5	53.9	70.4	73.7	83.5	95.8
매입 원가	전국	121.3	114.3	123.6	132.6	120.8	128.8	115.2
	충남	117.6	109.4	131.6	139.4	115.2	134.5	109.7
상품 판매가격	전국	94.5	86.5	90.3	100.9	96.4	105.6	102.1
	충남	98.1	92.2	97.9	105.3	94.9	111.2	97.2
자금 사정	전국	57.2	48.6	40.0	66.2	54.9	63.2	82.2
	충남	63.6	50.7	46.0	62.9	71.1	77.0	94.6
구매 고객수	전국	59.2	44.3	42.5	69.1	50.9	63.5	96.8
	충남	58.1	49.4	47.3	74.0	66.3	85.0	98.4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연진흥원.

2. 산업활동

[광공업 산업활동]

- 10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5% 감소, 전월대비 0.7% 증가
 - 화학제품, 의약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 금속,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감소
- 출하, 재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출하는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등의 업종이 감소
 - 재고는 식료품, 제1차금속, 자동차 등이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전기장비 등의 업종이 감소

광공업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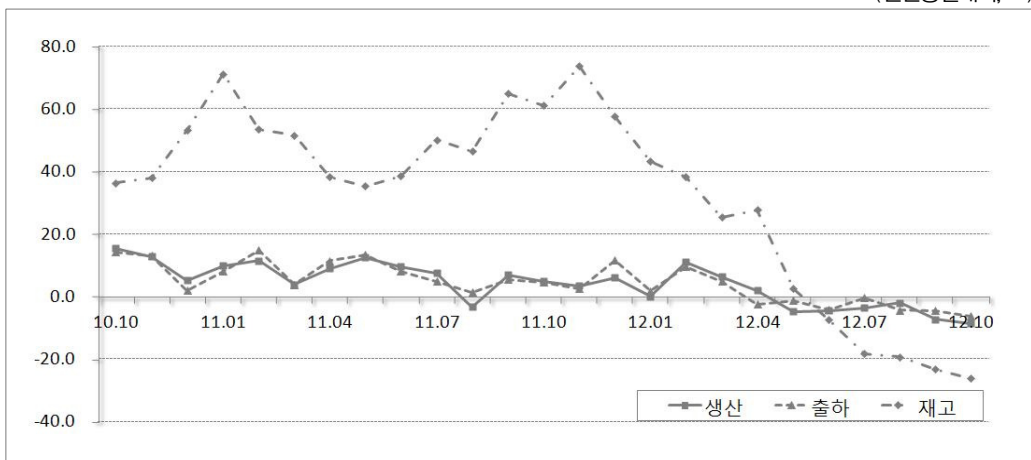
(2005=100.0, %)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P	10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생 산	154.7	148.9	143.4	148.3	153.4	-0.8	0.6
	출 하	146.8	141.0	135.0	142.7	144.4	-1.6	-1.2
	재 고	152.4	157.8	164.1	156.6	159.5	4.7	2.3
충남	생 산	250.3	229.0	212.6	218.2	229.1	-8.5	0.7
	출 하	225.8	208.5	199.0	205.8	211.8	-6.2	1.2
	재 고	272.0	216.3	202.9	198.5	201.1	-26.1	-0.3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통계청.

충남의 광공업 산업 활동 추이

(전년동월대비, %)



3. 소비 · 물가

[소비]

- 10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전월대비 5.5% 감소
 -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128,480백만원, 지수는 177.8을 나타냄
 - 전년동월대비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3.3% 증가, 충남지역의 사업체당 대형소매점 평균판매액은 5,840백만원, 전국 평균판매액 9,917백만원의 58.9% 수준으로 나타남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경성금액,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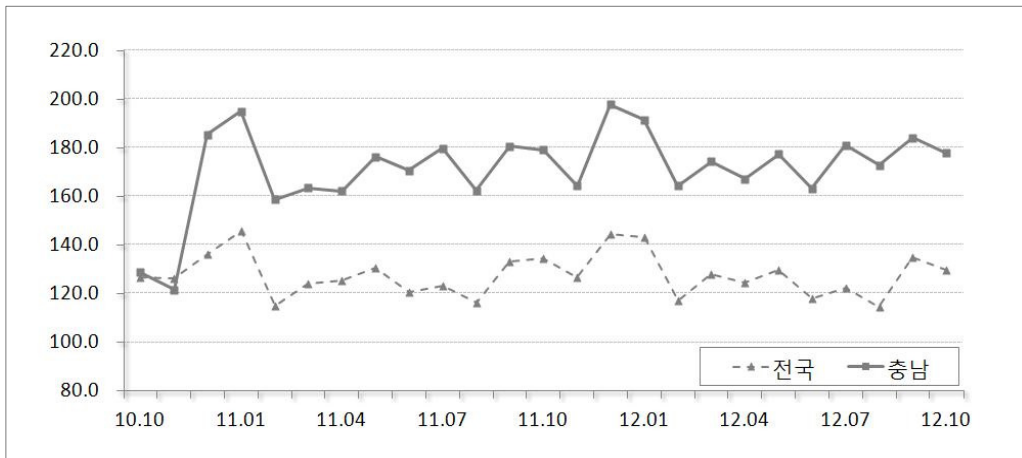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0월	7월	8월	9월 ^o	10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5,575,248	5,183,333	4,891,293	5,929,926	5,573,738	0.0	-6.0
충 남	124,339	128,184	123,597	135,939	128,480	3.3	-5.5

주 : 기 공표되었던 대형마트판매액은 10월부터 공표 중단.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05=100)



주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자동차 등록]

- 11월 충남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전월대비 0.3% 증가
 - 11월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55,322대로 전년동월보다 12,725대 감소, 전월보다 2,694대 증가
 - 승합차(-0.1%)를 제외한 승용차(+0.4%), 화물차(+0.2%), 특수화물(+0.7%) 모두 전월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 특수화물(+1.5%)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0.6%), 승합차(-6.0%), 화물차(-3.2%)는 등록대수 감소

* 전년동월대비 등록대수 감소에는 2012. 7월 세종시출범으로 인한 영향에 기인함.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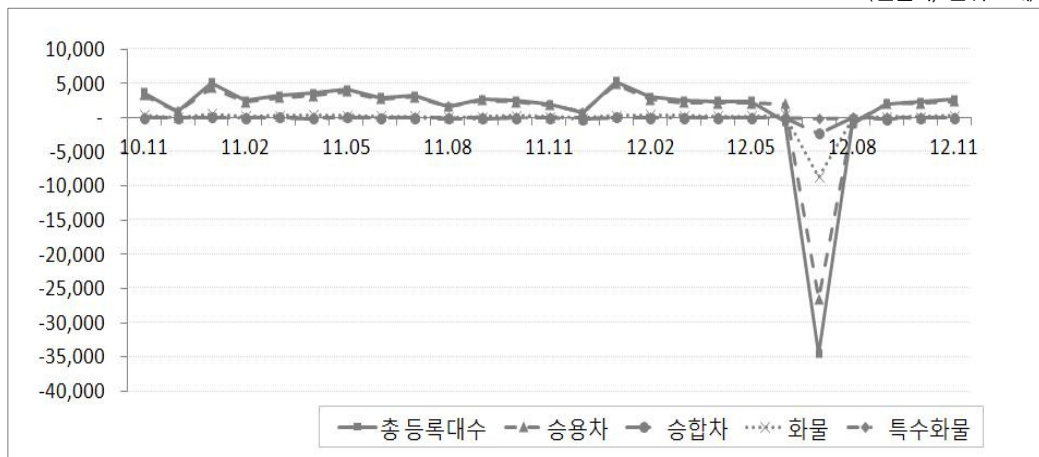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1년	2012년				증 감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68,047	848,303	850,312	852,628	855,322	-12,725	2,694
차 종 별	승용	618,572	608,524	610,556	612,698	615,090	-3,482	2,392
	승합	49,885	47,155	46,946	46,930	46,900	-2,985	-30
	화물	196,748	189,786	189,962	190,135	190,447	-6,301	312
	특수화물	2,842	2,838	2,848	2,856	2,885	43	20
용 도 별	자가용	827,454	808,702	810,653	812,836	815,333	-12,121	2,497
	관용	4,030	4,014	4,044	4,036	4,063	33	27
	영업용	36,563	35,587	35,615	35,756	35,926	-637	170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주 : 2012.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연기군 및 공주시 일부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됨에 따라 7월 자동차등록대수가 급감하였음.

[물가]

- 11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로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전월대비 0.4% 하락
 - 농축수산물(+2.1%), 공업제품(+1.6%), 서비스(+2.0%)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대부분 상승하였으나, 그 폭이 다소 축소됨
 - 생활물가지수는 106.5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전월대비 0.7% 하락
 - 신선식품지수는 109.5로 전년동월대비 9.6% 상승, 전월대비 7.8% 하락
 - 신선어개 108.7(+1.9%), 신선채소 96.3(+22.1%), 신선과실 121.8(+8.7%), 기타신선 112.1(-4.3%)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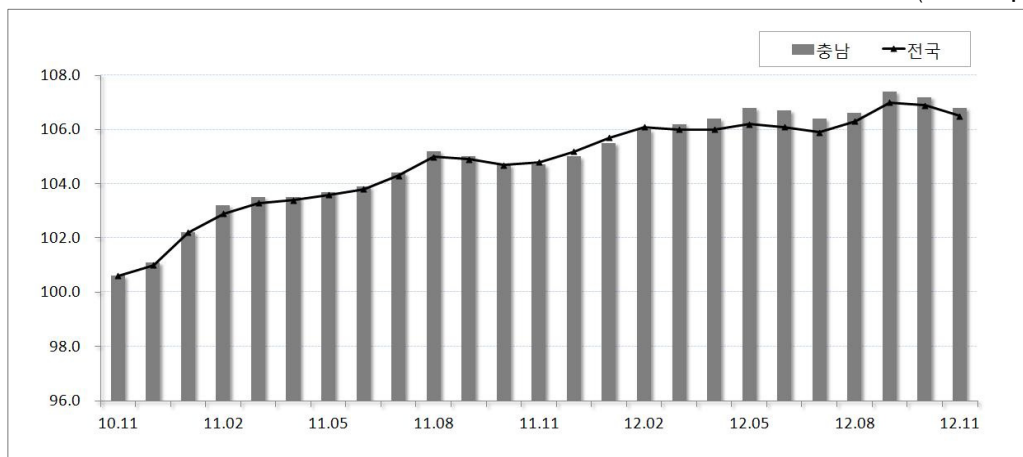
(2010=100,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4.8	106.3	107.0	106.9	106.5	1.6	-0.4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04.7	106.6	107.4	107.2	106.8	2.0	-0.4
상 품 상 조 별	상 품		107.1	108.9	110.5	109.8	109.0	1.8	-0.7
	서비스		102.5	104.4	104.3	104.6	104.6	2.0	0.0
	생활물가지수		105.1	106.5	107.7	107.2	106.5	1.3	-0.7
	신선식품지수		99.9	113.7	122.9	118.8	109.5	9.6	-7.8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4. 수출입

[수출입]

- 11월 충남의 수출은 57억45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0% 증가, 전월대비 2.9% 감소
 -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감소세를 보였던 평판 디스플레이및센서 역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수출증가세가 확대되었음
- 11월 충남의 수입은 28억75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9%, 전월대비 21.4% 각각 증가
 - 지난달 주춤하였던 원유 수입액의 증가세 전환, 석유제품 및 석탄의 감소폭 축소로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음
 - 11월 충남의 무역수지는 28억70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이 지난달에 비해 감소한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지난달 보다 감소함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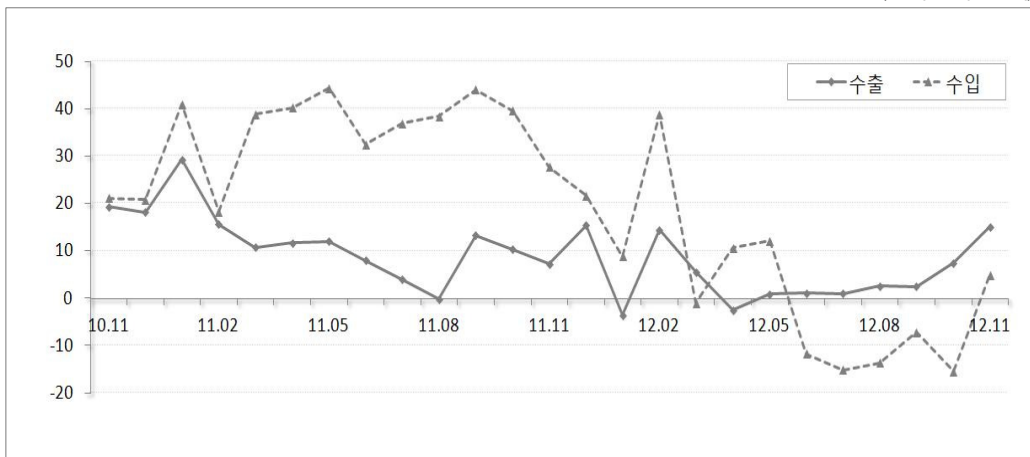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46,013	43,047	45,423	47,080	47,779	3.8	1.5	
	수입	43,010	41,086	42,538	43,390	43,398	0.9	0.0	
	무역수지	3,003	1,961	2,885	3,690	4,381	-	-	
충남	수출	4,996	5,049	5,567	5,919	5,745	15.0	-2.9	
	수입	2,741	2,476	2,994	2,369	2,875	4.9	21.4	
	무역수지	2,255	2,573	2,573	3,550	2,870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11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¹⁾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5,745	15.0	-2.9	100.0
1	반도체	1,628	15.6	-5.8	28.3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79	4.9	-7.5	18.8
3	석유제품	450	17.9	-23.5	7.8
4	전자응용기기	390	26.7	0.5	6.8
5	컴퓨터	250	-2.9	66.7	4.4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1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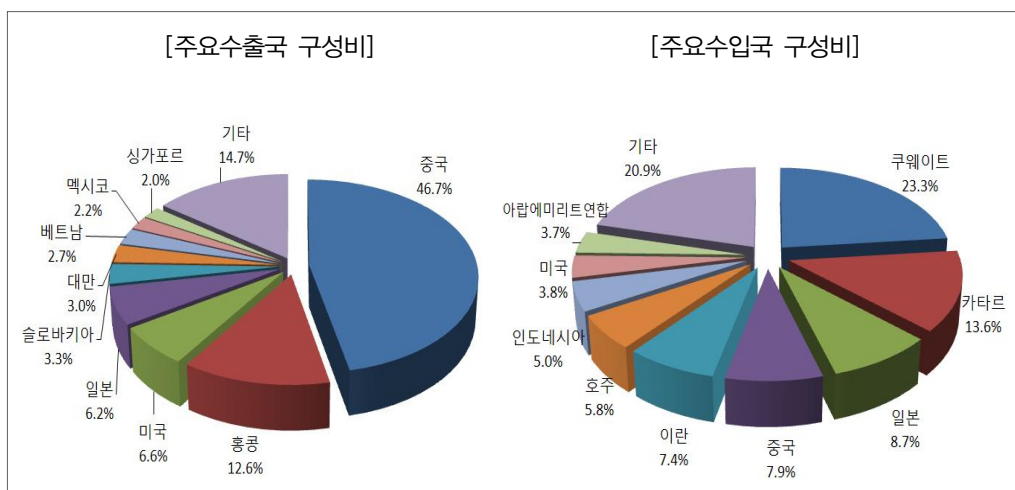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¹⁾	수입액	증 감 율		수입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2,875	4.9	20.0	100.0
1	원유	1,523	34.0	20.4	53.0
2	석유제품	254	-25.0	77.6	8.8
3	석탄	190	-47.3	35.7	6.6
4	정밀화학원료	56	11.6	0.0	1.9
5	식물성물질	45	-6.7	7.1	1.6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1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 용

[경제활동인구]

- 11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751천명으로 전년동월(167천명)보다 94천명(+5.7%)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117천명으로 전년동월(1,041천명)보다 77천명(+7.4%)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3.8%로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전월대비 0.9%p 하락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량)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경제 활동 인구	전국	25,318	25,623	25,755	25,787	25,652	1.3	-0.5
	충남	1,041	1,112	1,119	1,128	1,117	7.4	-0.9
	남자	615	664	663	664	656	6.7	-1.1
	여자	425	448	455	464	461	8.3	-0.7
경제 활동 참가율	전국	61.4	61.5	61.8	61.8	61.4	0.0	-0.4
	충남	62.8	64.2	64.4	64.7	63.8	1.0	-0.9
	남자	75.1	76.9	76.5	76.3	75.2	0.1	-1.1
	여자	50.8	51.5	52.3	53.1	52.5	1.7	-0.6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취업자]

- 11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09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 증가, 전월대비 1.1%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청년층 취업자는 170천명, 고령층 취업자는 311천명으로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천명(+71.2%), 고령층 취업자는 41천명(+15.2%) 증가
- 산업별 취업자는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증가세를 나타냄
 - 농림어업 185천명(+14.4%), 광공업 225천명(+3.4%), 도소매·음식숙박업 204천명(+9.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27천명(+11.0%)으로 대부분의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를 지속하던 건설업 취업자수가 감소세로 반전하였고, 전기·운수·통신 금융업 취업자수 감소세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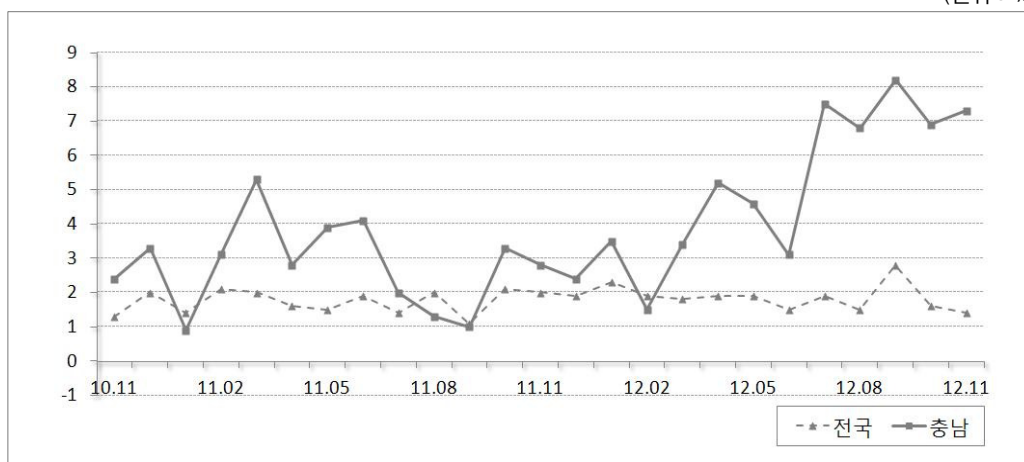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 동월비	전월비	
합계	전 국	24,589	24,859	25,003	25,069	24,941	1.4	-0.5	
	충 남	1,023	1,088	1,099	1,110	1,097	7.3	-1.1	
청년층 (15~29세)	전 국	3,832	3,868	3,775	3,741	3,762	-1.8	0.6	
	충 남	145	165	167	169	170	17.2	0.6	
고령층 (55세이상)	전 국	5,192	5,514	5,611	5,648	5,536	6.6	-2.0	
	충 남	270	308	313	318	311	15.2	-2.2	
	55~59세	92	97	100	103	101	6.0	-1.7	
	60세이상	178	211	213	215	210	17.9	-2.3	
산업별	농림어업	162	188	194	189	185	14.4	-2.0	
	광공업	217	212	219	217	225	3.4	3.3	
	건설업	70	70	72	75	70	-0.3	-6.9	
	도소매 음식숙박업	187	209	195	207	204	9.2	-1.4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294	319	332	331	327	11.0	-1.3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93	91	88	90	87	-6.3	-3.6	

취업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11월 충남의 실업자는 2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0% 증가, 실업률은 1.8%로 전년동월 대비 0.1%p, 전월대비 0.2%p 각각 상승

6. 금 용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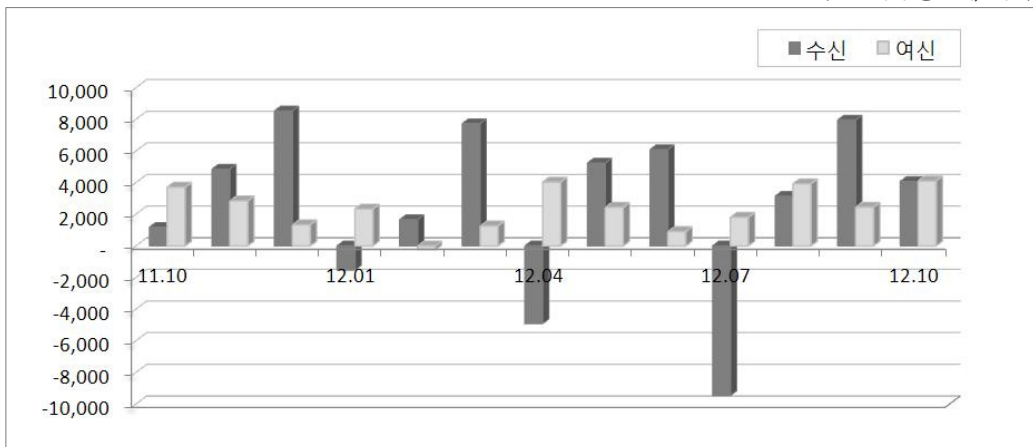
- 10월중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6조 9,646억원, 비은행기관 29조 3,034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46조 2,680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일부 대기업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 등으로 요구불 및 저축예금이 감소하여 예금은행 수신 증가폭 축소 [9월 +2,837억원 → 10월 +2,010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가 호조를 보였으나,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우려 등으로 만기도래자금 인출로 비은행기관 수신잔액 증가폭 축소 [9월 +5,123억원 → 10월 +2,064억원]
 - 총 수신증감액 : 9월 +7,960억원 → 10월 +4,074억원

[여신]

- 10월중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4조 9,763억원, 비은행기관 15조 6,316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40조 6,079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이 서산 및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신용대출 역시 추석연휴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으로 늘어나 예금은행 여신 증가폭 확대 [9월 +2,298억원 → 10월 +4,044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의 농수산물 출하자금 유입 등에 따른 대출상환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인 비은행기관 여신은 증가폭 축소 [9월 +151억원 → 10월 +57억원]
 - 총 여신증감액 : 9월 +2,449억원 → 10월 +4,101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11월 충남의 부도율은 0.75%로 전월대비 0.50%p 상승
 - 지역별로는 천안 1.83%, 공주 0.22%, 서산 0.00%, 아산 0.24%, 금산 0.14%, 태안 0.34%의 부도율을 나타냄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연중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등락	전년동월대비 등락
충 남	0.31	0.74	0.19	0.32	0.25	0.75	0.50	0.01
천 안	0.47	1.33	0.10	0.19	0.32	1.83	1.51	0.50
공 주	0.57	0.60	0.16	1.20	0.31	0.22	-0.09	-0.38
서 산	0.00	0.00	0.01	0.03	0.00	0.00	0.00	0.00
아 산	-	-	1.23	0.31	0.25	0.24	-0.01	-
금 산	-	-	0.12	0.00	0.00	0.14	0.14	-
태 안	-	-	0.00	0.00	0.00	0.34	0.34	-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11월 중 부도금액은 81억 3천만원으로 전월보다 51억 6천만원 증가
 - 제 조 업 : 10월 23억 3천만원 → 11월 75억 3천만원
 - 건 설 업 : 10월 1천만원 → 11월 1억 1천만원
 - 서비스업 : 10월 6억원 → 11월 3억 9천만원
- 11월 중 부도업체수는 3개로 전월(3개)과 동일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전월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57.9	14.9	7.2	23.3	75.3	17.4	52.0
	건설업	8.4	1.6	3.6	0.1	1.1	-7.3	1.0
	서비스업	7.6	2.6	20.1	6.0	3.9	-3.7	-2.1
	기타	0.0	0.7	0.6	0.3	1.0	1.0	0.7
	합계	73.9	19.8	31.5	29.7	81.3	7.4	51.6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0	1	1	3	1	1	-2
	건설업	1	1	0	0	0	-1	0
	서비스업	1	1	2	0	2	1	2
	기타	0	0	0	0	0	0	0
	합계	2	3	3	3	3	1	0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11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216개로 전월(203개)보다 13개 증가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11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659,328㎡로 전년동월대비 45.6% 감소, 전월대비 36.7% 증가
 - 11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40.4%), 공업용(21.8%), 상업용(21.3%)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1,212,422	878,978	719,978	482,405	659,328	-45.6	36.7	
주거용	673,510	462,415	176,729	123,023	266,283	-60.5	116.4	
상업용	140,891	90,296	87,311	105,478	140,170	-0.5	32.9	
농수산업	84,400	64,775	26,767	39,300	45,922	-45.6	16.8	
공업용	128,049	165,471	129,228	148,697	143,699	12.2	-3.4	
기 타	347,242	96,021	299,943	65,907	63,254	-81.8	-4.0	

자료 :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통계현황, 충청남도.

- 11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647,657㎡로 전년동월대비 64.6% 감소, 전월대비 47.9% 증가
 - 11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27.7%), 주거용(15.4%), 농수산업(10.8%)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1,827,431	624,679	440,062	437,787	647,657	-64.6	47.9	
주거용	1,215,017	351,444	185,225	114,421	100,057	-91.8	-12.6	
상업용	180,704	68,287	91,305	65,491	63,546	-64.8	-3.0	
농수산업	68,444	23,158	40,836	54,232	69,679	1.8	28.5	
공업용	236,679	134,175	69,982	95,754	179,701	-24.1	87.7	
기 타	126,587	47,615	52,714	107,889	234,674	85.4	1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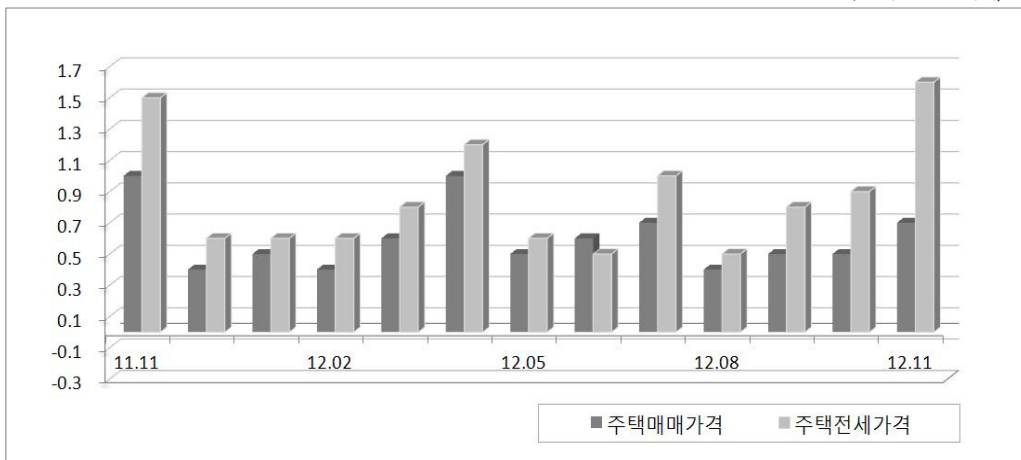
자료 :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통계현황, 충청남도.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11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11.6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전월대비 0.7% 각각 상승
 - 천안시의 경우 신규물량 공급의 부진으로 수요 대비 물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근 산업단지와 세종시로의 출퇴근 직장인 수요와 매매 선회 수요도 발생되어 상승세 지속
 - 매매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동남구(+1.2%) 및 서북구(+0.7%) 지역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 11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6.9로 전년동월대비 10.1%, 전월대비 1.6% 각각 상승
 - 아산시의 경우 인근 삼성전자 협력업체 근로자 수요와 세종시로 출퇴근 하려는 직장인 수요와 함께 천안시의 경우 신규 물량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지역 내 공단 직장인 수요 등이 지속되며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아산(+2.3%), 천안 동남구(+2.1%) 지역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토지거래]

- 11월 충남의 토지거래는 13,28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1% 감소, 전월대비 14.6% 증가
 - 토지거래 면적은 15,317천㎡로 전년동월대비 8.5%, 전월대비 13.5% 각각 증가

토지거래

(단위 : 건, 천㎡,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필 지	13,700	9,908	8,948	11,588	13,281	-3.1	14.6
면 적	14,119	10,470	9,252	13,496	15,317	8.5	13.5

자료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통계, 국토해양부.

해외 경제 동향(요약)



- 해외 경제는 미국 등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지역은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신흥국은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OECD는 2013년 세계 성장률과 대부분의 OECD 회원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음

미국

- 미국 경제는 3/4분기 성장률(전기비연율)이 2.0%로 전분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허리케인 샌디 등의 영향으로 10월 생산·소비 등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
- 주택가격이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10.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국

- 중국 경제는 최근 9월 이후 수출과 소비·생산·투자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지난 해 높은 수준을 보였던 소비자물가가 최근 안정세 지속

일본

- 일본 경제는 산업생산은 기저효과로 인해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외거래는 무역수지 적자가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음

유로지역

- 유로 경제는 2분기 연속 성장률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 제조업 PMI가 16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하였고, 소매판매도 감소세를 나타냄

1. 미 국

- 미국 경제는 2012년 3/4분기 성장률 2.0%(전기비연율)를 나타냄
- 10월 미국의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감소
 - 10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4% 감소하였으며, 9월과 10월 개선세를 보였던 ISM제조업지수가 11월 들어 기준치(50)를 하회하면서 '09.7월 이후 최저치 기록
 - * ISM제조업지수 : ('12.5)53.5, (6)49.7, (7)49.8, (8)49.6, (9)51.5, (10)51.7, (11)49.5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2%, 생산자물가는 2.3% 각각 증가
 - 10월 개인소비지출은 전월대비 감소(-0.2%)하였으나 소비심리는 개선흐름을 지속함
- 실업률은 7.9%를 나타내며 9월에 이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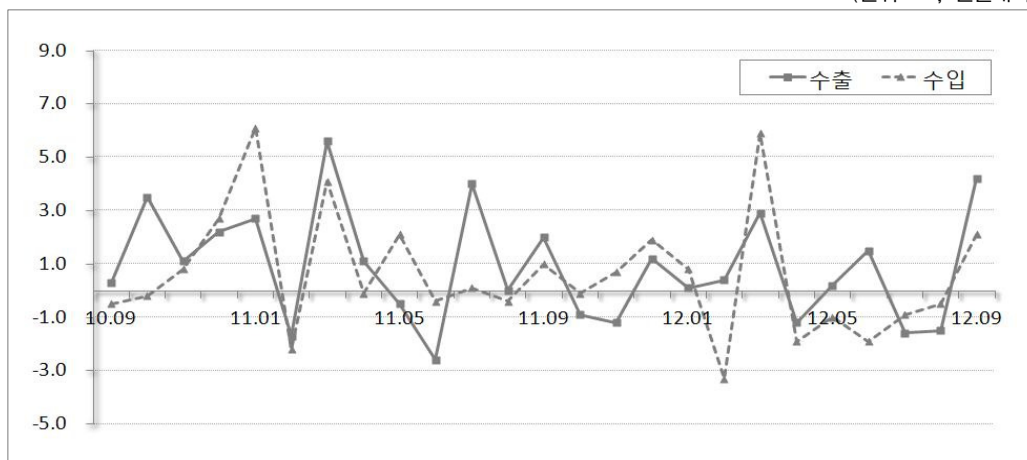
(단위 : %, 전월대비)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산업생산	4.1	0.0	0.0	0.7	-1.1	0.2	-0.4
소매판매	8.0	-0.1	-0.7	0.7	1.0	1.3	-0.3
물가 ¹⁾	생산자 ²⁾	6.0	0.6	0.7	0.5	2.0	2.1
	소비자	3.2	1.7	1.7	1.4	1.7	2.0
무역	수출	16.2	0.2	1.5	-1.6	-1.5	4.2
	수입	15.6	-1.0	-1.9	-0.9	-0.5	-2.1
실업률 ³⁾	9.0	8.2	8.2	8.3	8.1	7.8	7.9
주가지수 ⁴⁾	12,217.6	12,393.5	12,880.1	13,008.7	13,090.8	13,437.1	13,096.5

주 : 1) 전년동월대비 2) 최종재 기준 3)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12),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2.11), 한국은행.

미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2. 중 국

- 중국 경제는 3/4분기 성장률 7.4%(전년동기대비)를 나타냄
 - 전분기(7.6%)에 비해 0.2%p 하락하며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10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6% 증가
 - 10월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폭이 다소 확대됨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 지난해 높은 수준을 보였던 소비자물가가 최근 1.7%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 지속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6%,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증가
 - 8월 주춤하였던 중국의 대외거래가 9월부터 다시 회복세를 되찾아 수출은 큰 폭 증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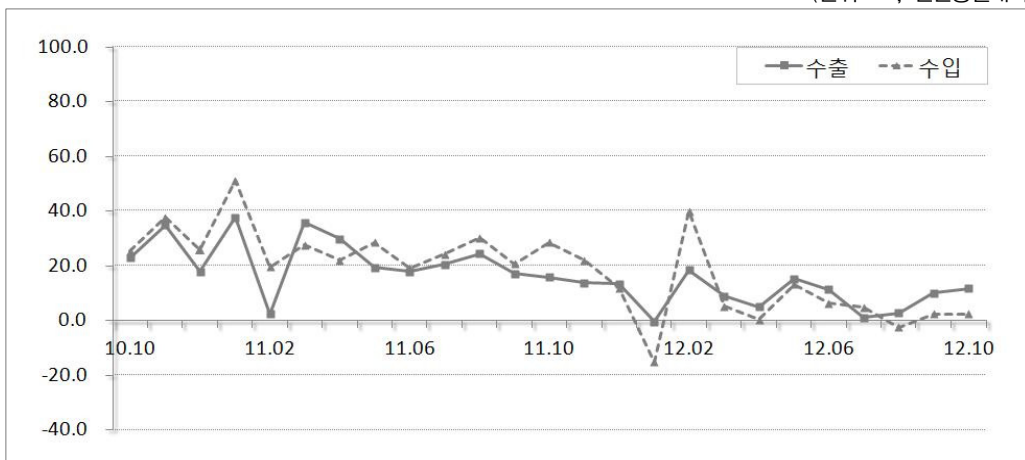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산업생산		13.9	9.6	9.5	9.2	8.9	9.2	9.6
소매판매		17.1	13.8	13.7	13.1	13.2	14.2	14.5
물가	생산자	6.1	-1.4	-2.1	-2.9	-3.5	-3.6	-2.8
	소비자	5.4	3.0	2.2	1.8	2.0	1.9	1.7
무역	수 출	20.3	15.3	11.3	1.0	2.7	9.9	11.6
	수 입	24.9	13.1	6.3	4.7	-2.6	2.4	2.4
주가지수 ¹⁾		2,199.42	2,372.23	2,225.43	2,109.91	2,047.52	2,086.17	2,068.88

주 : 1)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12),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2.11), 한국은행.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3. 일본

- 일본 경제는 3/4분기 성장률 -0.9%(전기대비)를 나타냄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5%, 수입은 1.6% 각각 하락
 - 수출은 6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음
- 10월 일본의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1.8% 증가, 소매판매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 소매판매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종료 및 경기침체 우려에 의한 내구재 판매 위축으로 감소
-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0.4%, 생산자물가 1.0% 각각 하락
- 실업률은 4.2%를 나타내며 전월과 보합세를 보이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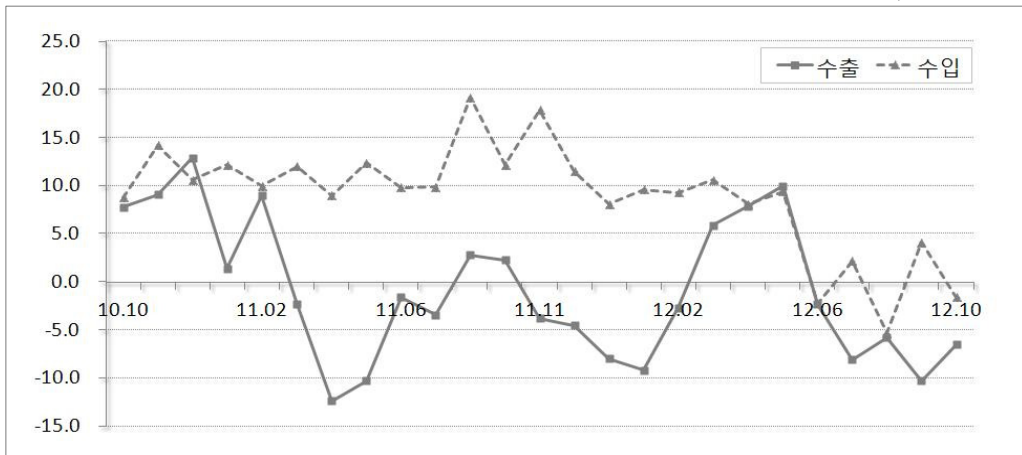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산업생산 ¹⁾		-2.4	-3.4	0.4	-1.0	-1.6	-4.1	1.8
소매판매		-1.2	3.6	0.2	-0.7	1.7	0.4	-1.2
물가	생산자	1.5	-0.8	-1.5	-2.2	-1.9	-1.5	-1.0
	소비자 ²⁾	-0.3	0.2	-0.2	-0.4	-0.4	-0.3	-0.4
무역	수 출	-2.7	10.0	-2.3	-8.1	-5.8	-10.3	-6.5
	수 입	12.0	9.4	-2.2	2.2	-5.3	4.1	-1.6
실업률 ³⁾		4.6	4.4	4.3	4.3	4.2	4.2	-
주가지수 ⁴⁾		8,455	8,543	9,007	8,695	8,840	8,870	8,842

주 : 1) 전월대비, 광공업, 2005=100 2) 2005=100 3)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12),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2.11), 한국은행.

일본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4.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2012년 3/4분기 성장률 -0.1% (전기대비)를 나타냄
- 9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5% , 소매판매는 0.2% 각각 감소
 - 산업생산이 '09.1월 이래 최대 감소세를 보이고 제조업 PMI가 16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하고 있음
- * PMI(Purchasing Manager' Index) : 구매관리자지수(기준치 : 50)
 - 기업들의 제조업 동향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사항들(신규주문, 생산, 재고, 출하량, 고용상태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치화 한 지수.
- 실업률은 11.6% 를 나타내며 전월보다 1p 상승
 -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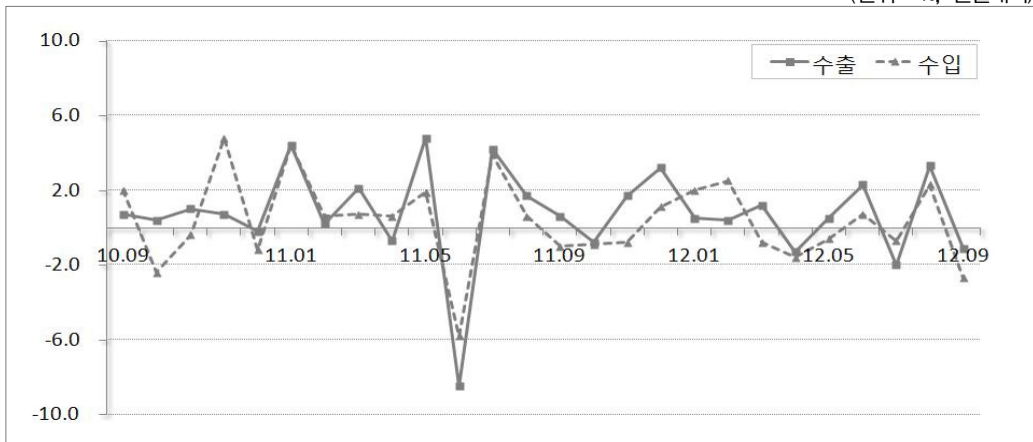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연간	5월	6월	7월	8월 ^P	9월 ^P	10월 ^P
산업생산 ¹⁾		3.4	0.9	-0.4	0.5	0.9	-2.5	-
소매판매		-0.6	1.0	0.1	-0.1	0.2	-0.2	-
물가 ²⁾	생산자	5.9	2.3	1.8	1.6	2.7	2.7	-
	소비자	2.7	2.4	2.4	2.4	2.6	2.6	2.5
무역	수 출	13.8	0.5	2.3	-2.0	3.3	-1.1	-
	수 입	13.1	-0.6	0.7	-0.7	2.3	-2.7	-
실업률 ³⁾		10.2	11.3	11.4	11.5	11.5	11.6	-
주가지수 ⁴⁾		2,316.6	2,118.9	2,264.7	2,325.7	2,440.7	2,454.3	2,503.6

주 : 1) 전산업(건설업 제외) 2)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기준 3) ILO 기준,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2.12),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2.11), 한국은행.

유로지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2.12.20] 당진 백석올미마을 '우수마을기업' 선정

- 충남 당진시 순성면 '백석올미마을(대표 김금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
 -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마을기업 781개소 중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당진 백석올미마을 등 9곳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
 - 백석올미마을은 귀농인인 김금순 대표를 중심으로 마을 부녀회 38명 전원이 200만원씩 출자해 만든 마을기업이며
 - 이번 선정에 따라 백석올미마을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우수마을기업 인증서와 내년 사업개발비 2000만원을 수여

['12.12.17] 충청도,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준비 가속화

- 미래산업기획연구단 운영 등으로 14개 사업 8,888억원 기획을 가시화하고, 동물약품 허브조성 등 5개 사업 미래 먹거리 창출 투자 기반 마련
 - 충청도는 지난 4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산업기획연구단 운영과, 도내 특성화된 대학 및 융합지구의 역량을 기반으로 산학연관의 협력으로 기획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추진한 결과, 동물약품 허브조성, 코스메틱 산업육성(R&D), 수생바이오매스사업(R&D), 당진시 산학융합지구 유치,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 등 5개 사업에 2,188억원을 투자할 기반이 될 국비 일부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
 - 또한, 미래산업기획연구단의 중심이 되어 미래성장동력산업, 광역·초광역, 중앙부처 제안사업으로 기획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구체화된 사업으로는 OLED 조명산업화, 유연전자산업 기반조성사업, 식물공장표준화사업, 복지기기 생산기술사업, 고감성 IT 융합 부품개발,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부품 개발 등 6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2013년 상반기 중에 사업제안서를 중앙부처 등에 제출할 계획
 - 도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산학연 협력과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12.12.17] 독립청양대학 글로벌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

- 충남도립청양대학(총장 최석충)이 싱가포르 3개 기관과 학술교류 및 해외취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이번 MOU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싱가포르 에프티엠에스글로벌 아카데미(FTMSGlobal Academy), 다이멘션스 국제대학(DIMENSIONS International College), TCC(TCC Manpower Pte. Ltd.) 등 3개 대학·기업과 체결
- 최석충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보다 양질의 해외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12.12.17] ‘무역 1조\$’ 충남수출 주역 한자리에

- 충남도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2.17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유공자 시상식을 개최
 - 안희정 지사와 이준우 도의회 의장,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회장을 비롯한 도내 수출 관련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정부 포상 전수와 ‘충청남도 수출탑’ 및 수출 유공자 시상 등으로 진행
 - 시상식에서 ▲2억불 수출탑은 천안시 소재 (주)티엠씨가 ▲1억불 수출탑은 천안 (주)에스엘 서봉이 ▲7천만불 수출탑은 아산 (주)광진기계가 받는 등 22개 업체가 정부 수출탑 수상
 - 안희정 지사는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8대 무역대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기업인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수출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 또한 “앞으로도 21세기 새로운 기업이 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넓혀가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에도 공헌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행사를 내포 시대, 21세기 환황해 경제시대 충남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해 더 좋은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

['12.12.13] ‘충남 협동조합 1호’ 탄생

- 충남도는 12.13일 논산에 위치한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대표 윤상림)’의 설립 신고를 수리, 충남 협동조합 1호가 탄생했다고 밝힘
 -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은 고구마 생산 정보 교류와 종자 개량 연구, 생산과 유통 등을 조합원들이 함께 추진, 공동 이익 창출과 조합원 복리증진,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3만㎡(10만평) 규모의 고구마 경작지와 1만6,500㎡(5,000평) 규모의 육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매출 12억원에 고용창출은 최소 5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도는 앞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컨설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누구나 빠르고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에 협동조합 설립 지원 전담창구를 개설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으며, 5인 이상이면 누구나 모든 산업 분야(금융·보험업 제외)에서 설립이 가능

['12.12.13] ‘충남 지역에너지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충남도는 12.1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 도 경제통상실장 등 도 공무원과 자문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용역을 수행 중인 충남발전연구원의 중간보고와 질의·응답,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이번 용역은 도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추진 중으로, 지역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안정적 공급 대책,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이용 대책 등을 제시
 - 도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자문 내용을 취합해 연구보고서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최종보고회는 내년 1월 중 가질 예정

['12.12.12] 충청남도 과학기술 신규 기획사업 등 보고·토론회 개최

- 충남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장원철 충남테크노파크 원장과 이종화 도의원 등 도 과학기술위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
 - 지난 4월 발족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역 R&D 개선을 위한 국과위 3대 정책과제와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상황 ▲신규 기획사업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 등이 진행
 -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과위 3대 정책과제로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R&D 포괄보조금(사업) 도입’과 지역 내 R&D 추진 현황과 수요를 조사·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R&D 전략 및 사업을 기획하고 지자체 과학기술담당 부서나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자체 산하 R&D 전담조직 육성’ 등이 보고
 - 이와 함께 신규 발굴 기획과제 사업으로는 ▲인간중심 미래형 자동차의 고감성 통합 인테리어산업 육성 ▲자동차용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생산기술개발 ▲비용저감형 태양광 병용 작물재배시스템 표준화 ▲유연전자산업 육성 ▲코스메틱-스파 융합형 라이프케어 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가정·요양용 복지기기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등 6건 보고
 - 한편 도 과학기술위원회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발족했으며, 도의 과학기술진흥 정책 평가·심의·조정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 발전 방안과 주요정책 적합성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

['12.12.11] 충남도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 도는 12.1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정명철 현대위아 대표이사, 이완섭 서산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MOU) 체결
 - 협약서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서산시 서산일반산업단지 내 41만9,326㎡(약 13만평) 부지에 자동차부품공장 신설을 위해 1단계로 2015년까지 6천억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또한, 현대위아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생산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이에 도와 서산시는 현대위아 협력사들이 원활하게 도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위아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함
 - 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중심으로 아산의 현대모비스, 서산의 현대과워텍과 현대다이모스, 홍성에 텐소풍성, 금산의 한국타이어, 그리고 서산 현대위아까지 핵심 자동차부품업체의 충남 집적도가 높아졌다”며 “협력업체 동반 이주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남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우뚝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

['12.12.10] 충남인삼 ‘베트남 시장 확대’ 가능성 확인

- 충남도는 지난 12. 6~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충남 인삼 홍보·판매·수출상담회를 실시, 228만 달러의 계약 체결 성과 거양
 - 도내 인삼 및 화장품(인삼 원료 사용)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고려인삼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17개 제조업체가 참여
 -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도내 기업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159건, 626만3,00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실시, 228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
 - 개막식에는 하노이 시민과 보건부 산하 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고, 일부 건강식품 및 미용상품은 행사 첫날부터 매진되었고, 도내 인삼제품들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베트남 기능성식품협회와 MOU를 체결
 -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K-POP 댄스공연 등 한류문화행사를 다채롭게 마련,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상당한 성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도내 업체들이 충남 인삼 세계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12.11.5] 도내 산단 입주기업 97% '정상 가동'

- 올해 충남도 내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에 새롭게 동지를 튼 기업체는 모두 85개인 것으로 나타남
 - 1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139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모두 1,938개로, 지난해 1853개보다 85개 업체가 증가
 - 지난 2007년 1,121개, 2008년 1,184개, 2009년 1,329개, 2010년 1,720개 업체 등과 비교하면, 해마다 163개 업체가 도내 산업단지에 새로 입주한 셈
 - 전체 입주 기업 중 사업장 건축을 모두 마친 업체는 1,561개이며, 정상 가동 중인 업체는 1,513개로 96.9%의 가동률을 기록
 - 도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도내 산업단지의 탁월한 입지와 도의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성공적인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민첩성 제고방안
 - 기업내의 조직창의성 모델
 - 해양플랜트 산업의 변화와 기대
 - 2012년 10대 히트상품
 - 2013년 한국기업의 6대 경영이슈
 - 금융위기 이후 한국수출
- 현대경제연구원 : <http://hri.co.kr>
 - 새정부 경제정책의 기대효과와 정책 제언
 -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
 - 2013년 주택시장 전망의 4가지 특징
 -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변화
 - 개성공단 확대,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다
 - 2000년대 세계무역구조 변화의 10대 특징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 이해부족과 선입견, 신흥자원 부국으로의 진출 어렵게 한다
 - 2013년 세계경제 전망, 수출 소폭 반등하며 성장률 3%대로
 -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차세대 절전형 기술
 - 유로존 남북 불균형 완화 뚜렷, 아직 갈 길은 험난
 - 한국기업의 자원개발 사업, 접근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 신세대, 이제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Cashless Society 진전 현황과 정책과제
 - 미국의 소비지출 서베이를 통해 본 가계소비의 특징
 - ICT 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현황과 전망
 - 금융의 경기순응성 측정 및 국제비교
-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korcham.net>
 - 2013년 설비투자계획 조사
 - 2012년 유통업 10대 이슈 조사
 - 201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 외환위기 15년, 기업환경의 변화와 대응과제 조사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총생산 (GDP) ¹⁾	억원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12,371,282
국민총소득 (GNI) ¹⁾	억원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47,530	12,405,039
1인당 GNI ¹⁾	억원	2,010	2,113	2,175	2,378	2,492
경제성장률 ²⁾	%	5.1	2.3	0.3	6.3	3.6
산업구조						
농림어업	%	2.9	2.7	2.8	2.6	2.7
광공업		27.5	28.1	28.0	30.5	31.4
전가·가스·수도사업		2.2	1.3	1.8	2.0	2.0
건설업		7.4	7.0	6.9	6.3	5.9
서비스업 및 기타		60.0	60.8	60.4	58.5	58.1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3	77.6	74.4	80.9	79.9
취업자	천명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농림어업	%	7.4	7.2	7.0	6.6	6.4
광공업		17.2	16.9	16.4	17.0	16.9
건설업		7.9	7.7	7.3	7.4	7.2
서비스업 및 기타		67.6	68.3	69.3	69.1	69.5
실업률	%	3.2	3.2	3.6	3.7	3.4
경상수지		21,770	3,198	32,790	29,394	26,505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7,129	5,170	37,866	40,082	30,950
서비스수지		△11,967	△5,734	△6,641	△8,626	△4,377
소득수지		135	4,435	2,277	1,016	2,456
경상이전수지		△3,527	△674	△712	△3,079	△2,523
수출액	억달러	3,715	4,220	3,635	4,664	5,552
수입액		3,568	4,353	3,231	4,252	5,244
총저축률	%	30.8	30.5	30.2	32.1	31.7
민간비중	%	20.2	21.2	23.4	24.7	24.1
정부비중		10.6	9.3	6.8	7.4	7.6
총자본형성	십억원	277,729	277,773	240,412	278,359	—
최종소비지출	%	69.1	70.0	70.1	67.8	68.3
민간비중	%	54.4	54.7	54.1	52.6	52.9
정부비중		14.7	15.3	16.0	15.2	15.4
생산자물가상승률	%	1.4	8.6	-0.2	3.8	6.1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7	2.8	3.0	4.0

주 : 1) 당해년 가격. 2) 실질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일경제지표 (2012.12.3기준)

금리

구 분	'10말	'11말	12.10말	11.29	11.30	12.3	전일비	'11말비
콜금리(1일), %	2.49	3.27	2.74	2.75	2.76	2.77	0.01	△0.50
CD(91일), %	2.80	3.55	2.85	2.85	2.85	2.85	0.00	△0.70
국고채(3년), %	3.38	3.34	2.77	2.83	2.84	2.84	0.00	△0.50
국고채(5년), %	4.08	3.46	2.84	2.90	2.91	2.91	0.00	△0.55
회사채(3년, AA-), %	4.27	4.21	3.29	3.36	3.37	3.36	△0.01	△0.85
외국인채권순매수(상장액원)	638,134	410,274	30,470	△49	3,464	1,523	△1,941	-

※ '10말('10.1.1~12.31), '11말('11.1.1~12.31), '12.9말('12.9.1~9.30),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주가

구 분	'10말	'11말	12.10말	11.29	11.30	12.3	전일비	'11말비
KOSPI지수	2,051.00	1,825.74	1,912.06	1,934.85	1,932.90	1,940.02	0.37%	6.26%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53,969	36,321	37,753	47,822	44,715	31,368	△14,003	-
KOSDAQ지수	510.69	500.18	508.31	496.73	499.37	498.97	△0.08%	△0.24%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228,939	△95,731	△11,020	353	864	2,566	1,702	-

※ 기간중 : '10말('10.1.1~12.31), '11말('11.1.1~12.31), '12.9말('12.9.1~9.30),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환율

구 분	'10말	'11말	12.10말	11.29	11.30	12.3	전일비	'11말비
₩/US\$	1,134.80	1,151.80	1,090.70	1,084.10	1,082.90	1,083.10	0.02	△5.96
선물환(NDF, 1월물)	1,137.00	1,154.70	1,092.60	1,085.90	1,084.60	1,084.80	0.02	△6.05
₩/CNY	170.43	182.29	174.82	174.07	174.46	173.89	△0.01	△4.61
₩/EUR	1,501.68	1,488.93	1,413.44	1,403.91	1,407.99	1,411.28	0.23	△5.22
₩/¥100	1,393.59	1,481.22	1,370.74	1,319.50	1,314.68	1,316.36	0.13	△11.13
¥/US\$	81.43	77.76	79.57	82.16	82.37	82.28	△0.11	5.81
US\$/EUR	1.3233	1.2927	1.2959	1.2950	1.3002	1.3030	0.22	0.80
CNY/US\$	6.6100	6.3248	6.2406	6.2281	6.2263	6.2279	0.03	△1.53

※ '11년 평균 환율 : (₩/US\$) 1,108.8원 (₩/¥100) 1,388.2원 ※ '12년 평균 환율('12.1.1~현재) : (₩/US\$) 1,130.5원 (₩/¥100) 1,423.3원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10말	'11말	12.10말	11.29	11.30	12.3	전일비	'11말비
LIBOR(Dollar, 3월, %)	0.30	0.58	0.31	0.31	0.31	0.31	0.00	△0.27
T/NOTE(10년물)	3.29	1.88	1.70	1.62	1.62	1.62	0.01	△0.27
DOW	11,578	12,218	13,096	13,022	13,026	12,966	△0.46%	6.12%
NIKKEI	10,229	8,455	8,928	9,401	9,446	9,458	△0.27%	11.56%
SANGHAI COMP	2,808	2,199	2,070	1,963	1,980	1,960	0.78%	△10.20%
외평채가산금리(bp, 2013년물)	175	165	68	64	65	65	0	△100
CDS(5년, bp)	95	161	68	56	58	63	2	△96
CRS(1년, %)	1.43	2.05	2.04	2.01	2.02	2.03	0.01	△0.01

유가 · 곡물 · 원자재

구 분	'10말	'11말	12.10말	11.29	11.30	12.3	전일비	'11말비
DUBAI (\$/배럴)	88.80	104.89	106.91	109.06	108.22	108.98	1.62%	3.90%
WTI 선물 (\$/배럴)	94.84	98.83	86.24	87.18	86.49	88.91	0.95%	△10.04%
Brent 선물 (\$/배럴)	94.75	107.38	108.70	109.87	109.51	111.23	0.42%	3.59%
원당 (센트/파운드)	32.12	23.3	19.46	19.23	19.16	19.34	0.00%	△17.00%
밀 (센트/부셀)	794	653	865	889	891	864	△2.48%	32.29%
대두 (센트/부셀)	1,403	1,208	1,547	1,449	1,446	1,439	△0.64%	19.13%
옥수수 (센트/부셀)	629	647	756	760	764	753	△0.79%	16.43%
동 (\$/톤)	9,665	7,570	7,824	7,806	7,744	7,955	1.12%	5.09%
알루미늄 (\$/톤)	2,468	1,992	1,913	2,016	1,998	2,080	1.46%	4.42%

※ '11년 평균 유가 : (Dubai) 105.91\$, (WTI) 95.12\$. ※ '12년 평균 유가('12.1.1~현재) : (Dubai) 109.26\$, (WTI 선물) 94.66\$.

자료 :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P	2011 ^P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551,484	579,740	651,338	763,538	—
전국대비 구성비 ¹⁾	%	5.66	5.65	6.12	6.51	—
GRDP 성장률 ²⁾	%	7.6	7.0	8.9	12.8	—
1인당 GRDP	천원	28,482	29,826	33,381	36,786	—
산업구조 ³⁾	—					
농림어업	%	6.7	6.3	5.7	5.1	—
광공업		45.9	47.0	51.0	54.7	—
전기가스수도업		4.4	2.5	3.4	3.8	—
건설업		8.7	9.3	8.1	7.5	—
서비스업 및 기타		34.5	34.9	31.7	28.9	—
15세이상인구	천명	1,547	1,564	1,588	1,613	1,643
경제활동인구	천명	1,021	996	991	1,003	1,025
취업자	천명	998	973	961	974	1,001
농림어업	%	21.9	19.5	18.8	16.8	16.3
광공업		17.0	17.4	17.1	19.0	20.4
건설업		6.6	5.7	5.8	5.6	6.4
서비스업 및 기타		54.5	57.3	58.3	58.5	57.0
실업자	천명	23	24	29	29	24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68	597	610	618
경제활동참가율	%	66.0	63.7	62.4	62.2	62.4
실업률	%	2.2	2.4	3.0	2.9	2.3
고용률	%	64.5	62.2	60.5	60.4	60.9
무역수지	백만달러	21,149	13,380	20,299	29,161	26,314
수출액	백만달러	47,823	42,936	39,428	54,054	59,954
수입액		26,674	29,556	19,129	24,893	33,640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9	2.7	3.0	4.1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3) 당해년가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천안시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179,708
공주시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25,823
보령시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24,708
아산시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32	213,087
서산시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90,522
논산시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25,239
계룡시 ¹⁾	2,726	3,058	3,195	2,947	4,368	4,319	4,058	4,482
당진시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6	60,282	72,559
금산군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15,606
연기군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24,822
부여군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15,052
서천군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15,088
청양군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6,646	6,737
홍성군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16,679
예산군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7	16,082	17,518
태안군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15,907
충청남도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1,338	763,538

주 :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9 10	124.6	1.2	7.2	3.0	98.7	0.8
11	125.9	1.0	9.0	4.5	99.4	0.6
12	126.6	0.6	9.8	5.3	99.5	0.2
2010 01	127.3	0.5	10.2	6.0	99.6	0.1
02	128.2	0.7	10.6	6.8	99.9	0.3
03	129.0	0.6	10.4	7.4	100.1	0.2
04	129.6	0.5	9.7	7.8	100.1	0.0
05	130.2	0.5	8.9	8.2	100.2	0.0
06	131.0	0.7	8.5	8.5	100.4	0.2
07	132.0	0.8	8.3	8.8	100.7	0.3
08	132.8	0.6	7.9	8.7	100.8	0.1
09	133.3	0.4	7.3	8.2	100.7	-0.0
10	133.3	0.0	6.0	7.3	100.3	-0.5
11	133.4	0.0	4.9	6.4	99.8	-0.4
12	134.3	0.7	5.3	6.2	100.0	0.2
2011 01	136.1	1.4	7.0	6.8	100.9	0.9
02	137.0	0.6	7.2	6.7	101.1	0.2
03	137.1	0.1	6.3	6.1	100.8	-0.4
04	137.2	0.0	5.3	5.6	100.3	-0.4
05	138.0	0.6	5.6	5.7	100.5	0.1
06	139.1	0.8	6.2	6.0	100.8	0.3
07	139.5	0.3	5.8	5.8	100.7	-0.1
08	139.7	0.1	5.2	5.3	100.4	-0.3
09	140.3	0.4	5.2	5.2	100.3	-0.0
10	141.0	0.5	5.4	5.3	100.4	0.1
11	141.6	0.4	5.3	5.2	100.4	-0.0
12	142.0	0.3	4.9	5.0	100.2	-0.2
2012 01	142.5	0.4	4.7	4.9	100.1	-0.1
02	143.1	0.4	4.7	4.9	100.1	0.0
03	143.0	-0.1	3.8	4.3	99.6	-0.6
04	143.8	0.6	4.3	4.4	99.7	0.2
05	145.2	0.9	5.4	4.9	100.2	0.5
06	145.8	0.5	5.4	4.9	100.3	0.1
07	146.1	0.2	5.0	4.7	100.1	-0.2
08	145.9	-0.1	4.0	4.2	99.6	-0.4
09	146.7	0.5	4.3	4.3	99.7	0.1
10	146.6	-0.1	3.4	3.4	99.2	-0.5

자료 : 2012년 10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2012.12.

시장경기동향

(기준지수=100)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09	68.0	79.1	60.5	78.0	63.6	77.6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1	65.6	94.4	63.1	94.8	67.9	91.0
2011 4/4	64.3	94.2	67.8	94.2	69.1	89.2
2012 1/4	48.2	87.2	51.8	85.1	49.8	81.9
2/4	64.7	80.3	64.9	91.1	62.9	75.1
3/4	58.6	78.5	58.7	80.5	53.2	70.9
4/4	-	89.9	-	94.8	-	86.8
2010 11	94.0	98.8	96.4	100.0	85.7	95.2
12	58.3	73.8	57.1	67.5	57.1	80.8
2011 01	39.3	79.3	36.9	86.3	53.6	79.8
02	53.6	81.0	48.8	76.2	66.7	89.3
03	71.4	115.5	75.0	109.5	72.6	102.4
04	84.6	109.5	77.2	120.2	70.3	100.0
05	70.7	100.9	67.3	92.2	70.7	93.1
06	60.1	76.7	58.3	87.6	67.7	87.3
07	63.1	88.8	46.7	88.0	60.6	84.8
08	65.6	96.7	58.1	86.5	66.9	92.4
09	85.5	101.9	85.3	108.2	77.9	95.9
10	69.7	102.2	71.2	104.9	72.8	91.7
11	63.5	93.2	65.5	91.9	65.0	86.3
12	59.7	87.3	66.6	85.7	69.5	89.5
2012 01	54.2	97.8	62.9	97.7	54.4	93.1
02	43.3	61.9	43.8	51.9	46.0	60.9
03	47.0	101.8	48.7	105.7	49.1	91.7
04	67.4	84.3	64.3	97.5	56.7	78.7
05	79.6	83.3	76.4	99.8	68.5	71.5
06	47.1	73.2	54.0	76.1	63.6	75.0
07	50.4	72.0	53.3	68.1	50.7	69.2
08	52.9	64.9	46.2	64.0	46.0	57.2
09	72.4	98.5	76.5	109.4	62.9	86.2
10	76.9	102.2	72.7	107.5	71.1	94.6
11	82.7	96.4	90.3	101.7	77.0	91.3
12	-	71.0	-	75.1	-	74.4

자료 : 월간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 경상판매액)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9	1,000,673	8.0	-	716,401	8.5	-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1	1,450,812	32.5	-	918,307	15.2	-
2011 3/4	366,540	32.1	4.6	246,878	13.0	10.9
4/4	378,808	29.2	3.3	223,078	14.6	-9.6
2012 1/4	378,000	6.5	-0.2	247,840	9.8	11.1
2/4	363,964	3.9	-3.7	230,878	3.7	-6.8
3/4	388,522	6.0	6.7	269,446	9.1	16.7
2010 10	87,095	-0.8	-11.8	61,530	4.4	-19.6
11	81,277	-4.9	-6.7	61,200	6.8	-0.5
12	124,757	33.7	53.5	71,890	11.9	17.5
2011 01	133,939	50.7	7.4	85,523	35.6	19.0
02	108,755	16.3	-18.8	69,975	-0.7	-18.2
03	112,386	28.3	3.3	70,159	12.7	0.3
04	111,521	37.4	-0.8	69,653	19.4	-0.7
05	121,238	33.1	8.7	78,018	17.3	12.0
06	117,625	43.1	-3.0	75,023	18.6	-3.8
07	124,762	36.4	6.1	84,338	17.1	12.4
08	114,166	30.9	-8.5	79,742	14.2	-5.4
09	127,612	29.2	11.8	82,798	8.1	3.8
10	124,339	42.8	-2.6	72,739	18.2	-12.1
11	114,856	41.3	-7.6	68,295	11.6	-6.1
12	139,613	11.9	21.6	82,044	14.1	20.1
2012 01	136,752	2.1	-2.0	90,781	6.1	10.6
02	116,618	7.2	-14.7	76,802	9.8	-15.4
03	124,630	10.9	6.9	80,257	14.4	4.5
04	119,552	7.2	-4.1	75,968	9.1	-5.3
05	127,364	5.1	6.5	81,100	4.0	6.8
06	117,048	-0.5	8.1	73,810	-1.6	-9.0
07	128,184	2.7	9.5	87,973	4.3	19.2
08	123,597	8.3	-3.6	88,229	10.6	0.3
09	135,939	6.5	10.0	93,244	12.6	5.7
10	128,480	3.3	-5.5	-	-	-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09 11	793,405	31,776	3,531	550,759	50,697	189,431	2,518
12	796,918	34,631	3,513	554,070	50,654	189,671	2,523
2010 01	799,644	34,175	2,726	556,506	50,627	189,979	2,532
02	802,175	34,944	2,531	558,906	50,573	190,154	2,542
03	805,400	36,195	3,225	561,742	50,576	190,533	2,549
04	809,436	37,547	4,036	565,070	50,575	191,237	2,554
05	812,325	37,360	2,889	567,579	50,577	191,606	2,563
06	815,377	36,510	3,052	570,488	50,479	191,838	2,572
07	819,864	38,223	4,487	574,616	50,498	192,165	2,585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08	860,844	38,379	1,607	611,828	50,087	196,139	2,790
09	863,512	37,391	2,668	614,423	49,980	196,305	2,804
10	866,051	36,203	2,539	616,701	49,905	196,607	2,838
11	868,047	34,556	1,996	618,572	49,885	196,748	2,842
12	868,688	34,297	641	619,438	49,639	196,747	2,864
2012 01	874,019	34,506	5,331	624,415	49,661	197,073	2,870
02	877,054	35,003	3,035	627,119	49,576	197,463	2,896
03	879,550	34,242	2,496	629,387	49,500	197,761	2,902
04	881,916	33,043	2,366	631,481	49,485	198,031	2,919
05	884,348	31,311	2,432	633,644	49,474	198,298	2,932
06	883,775	27,788	-573	635,705	49,457	198,684	2,929
07	849,209	-10,028	-34,566	609,179	47,178	190,024	2,828
08	848,303	-12,541	-906	608,524	47,155	189,786	2,838
09	850,312	-13,200	2,009	610,556	46,946	189,962	2,848
10	852,628	-13,423	2,316	612,698	46,930	190,135	2,865
11	855,322	-12,725	2,694	615,090	46,900	190,447	2,885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9	97.1	2.7	96.7	2.0	81.6	5.7	97.2	2.8	96.6	2.3	97.1	2.7
2010	100.0	3.0	100.0	3.4	100.0	22.6	100.0	2.9	100.0	3.5	100.0	3.0
2011	104.1	4.1	104.6	4.6	106.1	6.1	104.0	4.0	104.2	4.2	104.4	4.4
2011 3/4	104.9	4.5	105.4	5.0	111.6	7.6	104.8	4.4	104.9	4.5	105.2	4.8
4/4	104.8	3.9	105.2	4.1	100.8	-8.3	104.7	3.8	104.9	4.0	105.3	4.3
2012 1/4	105.9	2.8	106.3	2.6	110.7	0.4	105.9	2.9	105.6	2.4	106.3	3.0
2/4	106.6	2.8	107.0	2.8	113.5	11.5	106.7	3.0	105.9	1.9	106.8	2.7
3/4	106.8	1.8	106.8	1.3	115.2	3.2	106.8	1.9	105.9	1.0	106.9	1.6
2010 11	100.6	3.0	100.5	3.3	106.7	31.2	100.6	2.9	100.6	3.3	100.7	3.1
12	101.1	3.2	101.2	3.6	106.4	26.8	101.1	3.1	101.0	3.4	101.1	3.4
2011 01	102.2	3.5	102.6	4.3	109.4	23.0	102.1	3.4	102.2	3.7	102.3	3.6
02	103.2	4.2	103.9	5.2	110.9	20.7	103.1	4.1	103.2	4.3	103.4	4.4
03	103.5	4.3	104.2	5.1	110.6	16.2	103.4	4.3	103.8	4.4	103.9	4.5
04	103.5	3.9	104.2	4.4	106.2	7.8	103.5	3.8	103.6	3.9	103.8	4.2
05	103.7	3.9	103.9	3.9	100.2	3.0	103.6	3.7	103.9	4.1	104.0	4.4
06	103.9	4.3	104.2	4.6	99.1	6.5	103.8	4.1	104.1	4.4	104.3	4.8
07	104.4	4.5	104.6	4.8	105.8	12.1	104.3	4.3	104.5	4.6	104.8	4.9
08	105.2	4.9	105.8	5.5	116.7	15.1	105.1	4.8	105.1	4.8	105.4	5.0
09	105.0	4.1	105.7	4.4	112.3	-3.5	104.9	3.9	105.0	4.0	105.3	4.5
10	104.7	3.6	105.2	3.6	103.5	-13.1	104.6	3.5	104.7	3.6	105.2	4.0
11	104.7	4.1	105.1	4.6	99.9	-6.8	104.6	4.0	104.9	4.3	105.2	4.5
12	105.0	3.9	105.4	4.2	99.0	-7.4	104.8	3.7	105.1	4.1	105.5	4.4
2012 01	105.5	3.2	105.9	3.2	106	-3.4	105.5	3.3	105.4	3.1	106.0	3.6
02	106.0	2.7	106.4	2.4	111.1	0.2	105.9	2.7	105.8	2.5	106.4	2.9
03	106.2	2.6	106.7	2.4	115.1	4.1	106.2	2.7	105.7	1.8	106.6	2.6
04	106.4	2.8	106.9	2.6	113.5	6.9	106.5	2.9	105.7	2.0	106.7	2.8
05	106.8	3.0	107.2	3.2	116.5	16.3	106.8	3.1	106.2	2.2	106.9	2.8
06	106.7	2.7	107.0	2.7	110.4	11.4	106.8	2.9	105.9	1.7	106.7	2.3
07	106.4	1.9	106.2	1.5	109.1	3.1	106.4	2.0	105.6	1.1	106.5	1.6
08	106.6	1.3	106.5	0.7	113.7	-2.6	106.7	1.5	105.7	0.6	106.7	1.2
09	107.4	2.3	107.7	1.9	122.9	9.4	107.4	2.4	106.5	1.4	107.5	2.1
10	107.2	2.4	107.2	1.9	118.8	14.8	107.3	2.6	106.4	1.6	107.2	1.9
11	106.8	2.0	106.5	1.3	109.5	9.6	106.8	2.1	106.0	1.0	106.9	1.6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1	59,954	10.9	-	33,640	35.1	-	26,314
2011 3/4	15,449	5.6	4.1	8,918	40.2	3.7	6,531
4/4	15,834	10.9	2.5	8,497	29.1	-4.7	7,337
2012 1/4	14,531	5.1	-8.2	8,687	13.9	2.2	5,844
2/4	14,812	-0.2	1.9	8,853	2.9	1.9	5,959
3/4	15,750	1.9	6.3	7,868	-11.8	-11.1	7,882
2010 11	4,660	19.3	-6.7	2,147	21.1	5.7	2,513
12	4,619	18.1	-0.9	2,405	20.8	12.0	2,214
2011 01	4,733	29.3	2.5	2,556	40.9	6.3	2,177
02	4,220	15.6	-10.8	2,234	18.2	-12.6	1,986
03	4,872	10.7	15.5	2,835	38.8	26.9	2,037
04	4,868	11.7	-0.1	2,688	40.2	-5.2	2,180
05	5,022	12.0	3.2	2,781	44.3	3.5	2,241
06	4,957	7.9	-1.3	3,131	32.5	12.6	1,826
07	5,089	3.9	2.7	2,826	36.9	-9.7	2,263
08	4,925	-0.2	-3.2	2,867	38.4	1.5	2,058
09	5,435	13.2	10.4	3,225	44.0	12.5	2,210
10	5,510	10.3	1.4	2,834	39.6	-12.1	2,676
11	4,996	7.2	-9.3	2,741	27.7	-3.3	2,255
12	5,328	15.4	6.6	2,922	21.6	6.6	2,406
2012 01	4,564	-3.6	-14.3	2,781	8.8	-4.8	1,783
02	4,828	14.4	5.8	3,102	38.8	11.5	1,726
03	5,139	5.5	6.4	2,804	-1.1	-9.6	2,335
04	4,742	-2.6	-7.7	2,972	10.6	6.0	1,770
05	5,061	0.8	6.7	3,117	12.1	4.9	1,944
06	5,009	1.0	-1.0	2,764	-11.7	-11.3	2,245
07	5,134	0.9	2.5	2,398	-15.1	-13.2	2,736
08	5,049	2.5	-1.7	2,476	-13.7	3.3	2,573
09	5,567	2.4	10.3	2,994	-7.2	20.9	2,573
10	5,919	7.4	6.3	2,369	-15.5	-20.9	3,550
11	5,745	15.0	-2.9	2,875	4.9	21.4	2,870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09	991	-0.5	585	406	62.4	-1.3	74.6	50.5
2010	1,003	1.2	591	412	62.2	-0.2	74.1	50.5
2011	1,025	2.2	609	416	62.4	0.2	75.0	50.1
2011 3/4	1,044	0.8	616	428	63.4	-0.7	75.7	51.4
4/4	1,031	2.3	612	419	62.2	0.1	74.6	50.0
2012 1/4	991	2.9	595	396	59.0	-0.1	71.5	46.8
2/4	1,110	4.6	653	457	65.1	0.3	77.0	53.3
3/4	1,120	7.3	664	456	64.7	1.3	76.9	52.5
2010 11	1,020	2.2	602	419	62.9	0.4	75.1	51.0
12	968	3.1	579	389	59.5	0.8	72.1	47.3
2011 01	923	-0.9	558	365	56.7	-1.4	69.4	44.3
02	955	2.0	579	376	58.6	0.3	71.8	45.6
03	1,012	5.8	608	405	62.0	2.4	75.3	49.0
04	1,042	2.7	621	421	63.7	0.6	76.9	50.9
05	1,064	3.2	628	436	65.0	0.9	77.6	52.7
06	1,076	3.7	629	447	65.6	1.3	77.6	53.9
07	1,051	1.4	619	432	63.9	-0.3	76.2	52.0
08	1,043	1.1	619	424	63.3	-0.5	75.9	50.9
09	1,038	0.0	611	427	62.9	-1.3	74.9	51.2
10	1,066	3.1	624	442	64.5	0.7	76.3	52.8
11	1,041	2.0	615	425	62.8	-0.1	75.1	50.8
12	985	1.8	596	389	59.3	-0.2	72.4	46.4
2012 01	959	3.8	572	386	57.4	0.7	69.1	45.8
02	975	2.1	592	383	58.0	-0.6	71.1	45.2
03	1,041	2.8	622	419	61.7	-0.3	74.2	49.3
04	1,097	5.3	648	448	64.6	0.9	76.9	52.5
05	1,113	4.6	654	459	65.3	0.3	77.1	53.6
06	1,119	4.0	657	463	65.3	-0.3	76.9	53.8
07	1,129	7.4	664	465	65.5	1.6	77.2	53.8
08	1,112	6.6	664	448	64.2	0.9	76.9	51.5
09	1,119	7.7	663	455	64.4	1.5	76.5	52.3
10	1,128	5.8	664	464	64.7	0.2	76.3	53.1
11	1,117	7.4	656	461	63.8	1.0	75.2	52.5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청장년층					고령층		
	합계	전년 동월기비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2009	961	-1.2	7	131	212	253	112	74	61	112
2010	974	1.3	9	140	215	252	115	84	58	102
2011	1001	2.8	10	139	215	257	119	89	63	109
2011 3/4	1,021	1.4	11	136	214	260	120	92	67	122
4/4	1,009	2.8	8	136	219	263	120	93	63	107
2012 1/4	961	2.8	10	140	213	251	120	89	56	83
2/4	1,084	4.3	12	149	222	266	126	99	64	146
3/4	1,097	7.5	13	154	222	270	126	99	63	150
2010 11	995	2.4	8	143	214	253	119	88	60	111
12	942	3.3	8	144	214	248	114	84	54	76
2011 01	899	0.9	11	143	212	242	107	80	47	56
02	924	3.1	12	142	213	243	110	79	56	68
03	982	5.3	13	137	213	249	116	85	63	107
04	1,017	2.8	10	140	213	257	118	91	67	122
05	1,046	3.9	8	143	216	261	124	91	70	135
06	1,057	4.1	9	142	220	264	127	91	69	136
07	1,027	2.0	12	141	217	256	120	90	66	124
08	1,019	1.3	13	134	209	261	122	92	67	122
09	1,016	1.0	7	133	216	261	119	93	68	119
10	1,038	3.3	7	135	218	267	123	93	69	128
11	1,023	2.8	8	137	222	264	122	92	64	115
12	965	2.4	10	136	216	259	116	92	56	80
2012 01	930	3.5	12	133	210	251	120	85	51	68
02	938	1.5	10	140	213	247	116	85	56	72
03	1,015	3.4	8	147	216	257	124	95	60	109
04	1,069	5.2	14	145	222	263	125	100	62	139
05	1,094	4.6	12	150	223	268	126	99	66	150
06	1,090	3.1	11	151	221	267	126	98	65	150
07	1,104	7.5	15	155	221	272	126	99	64	152
08	1,088	6.8	14	151	223	267	125	97	62	149
09	1,099	8.2	11	156	221	270	128	100	64	150
10	1,110	6.9	11	158	219	273	131	103	65	151
11	1,097	7.3	9	161	222	266	129	101	62	148

자료 : 행정구역별 연령별취업자,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전년 동월(기)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2009	961	-1.2	181	164	93	56	188	179
2010	974	1.3	164	185	99	55	177	296
2011	1,001	2.8	163	204	97	64	177	297
2011 3/4	1,021	1.4	182	205	93	66	177	299
4/4	1,009	2.8	152	215	93	71	185	293
2012 1/4	961	2.8	99	208	98	65	191	300
2/4	1,084	4.3	183	206	98	70	197	330
3/4	1,097	7.5	190	214	91	69	205	327
2010 11	995	2.4	176	191	100	56	170	302
12	942	3.3	115	199	102	55	173	297
2011 01	899	0.9	90	196	103	52	170	289
02	924	3.1	108	197	102	56	172	289
03	982	5.3	159	196	103	60	172	293
04	1,017	2.8	182	201	98	62	172	301
05	1,046	3.9	206	201	99	63	173	305
06	1,057	4.1	205	200	99	67	179	308
07	1,027	2.0	185	201	94	63	180	305
08	1,019	1.3	181	205	92	66	180	295
09	1,016	1.0	180	207	94	67	171	297
10	1,038	3.3	189	213	92	70	180	295
11	1,023	2.8	162	217	93	70	187	294
12	965	2.4	105	214	95	72	189	290
2012 01	930	3.5	80	211	97	67	190	287
02	938	1.5	82	208	98	63	191	296
03	1,015	3.4	136	205	98	67	191	319
04	1,069	5.2	176	203	96	70	192	332
05	1,094	4.6	188	209	99	70	199	330
06	1,090	3.1	186	205	98	71	202	329
07	1,104	7.5	188	212	94	67	213	331
08	1,088	6.6	188	212	91	70	209	319
09	1,099	8.2	194	219	88	72	195	332
10	1,110	6.9	189	217	90	75	207	331
11	1,097	7.3	185	225	87	70	204	327

자료 : 행정구역별 산업별취업자, 통계청.

실업률, 실업자

(단위 : 천명, %, %p)

구분	실업률				실업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09	3.0	0.6	3.5	2.3	29	25.1	20	9
2010	2.9	-0.1	3.1	2.5	29	-2.4	18	10
2011	2.3	-0.6	2.4	2.2	24	-17.8	15	9
2011 3/4	2.2	-0.6	2.5	1.9	23	-20.1	15	8
4/4	2.1	-0.5	2.5	1.6	22	-16.4	15	7
2012 1/4	3.0	0.0	3.0	3.1	30	5.6	18	12
2/4	2.3	0.4	2.1	2.5	25	22.8	14	12
3/4	2.0	-0.2	2.0	2.0	23	-3.4	14	9
2010 11	2.4	-0.3	2.6	2.3	25	-6.4	15	10
12	2.6	-0.3	2.5	2.8	26	-6.6	15	11
2011 01	2.6	-1.8	2.6	2.6	24	-41.3	15	9
02	3.3	-1.0	2.4	4.6	31	-21.8	14	17
03	3.0	0.5	2.8	3.2	30	24.5	17	13
04	2.4	-0.1	2.4	2.4	25	-0.8	15	10
05	1.7	-0.8	1.7	1.7	18	-28.1	11	7
06	1.7	-0.4	1.6	1.8	19	-15.5	10	8
07	2.3	-0.6	2.5	1.9	24	-18.9	16	8
08	2.3	-0.1	2.6	1.8	24	-6.0	16	8
09	2.2	-1.0	2.3	2.0	22	-31.9	14	8
10	2.6	-0.1	3.4	1.4	28	-1.8	22	6
11	1.7	-0.7	1.7	1.7	17	-30.5	10	7
12	2.1	-0.5	2.4	1.6	21	-19.5	14	6
2012 01	2.9	0.3	3.1	2.6	28	16.5	18	10
02	3.8	0.5	4.0	3.5	37	17.6	23	13
03	2.5	-0.5	2.0	3.1	26	-15.0	13	13
04	2.5	0.1	2.3	2.7	27	8.3	15	12
05	1.8	0.1	1.5	2.2	20	8.8	10	10
06	2.6	0.9	2.5	2.7	29	56.2	17	12
07	2.2	-0.1	2.2	2.1	25	3.3	15	10
08	2.1	-0.2	2.2	2.0	24	-0.4	15	9
09	1.7	-0.5	1.6	1.8	19	-14.3	11	8
10	1.6	-1.0	1.4	1.9	18	-33.9	10	9
11	1.8	0.1	1.7	1.9	20	15.0	11	9

자료 : 행정구역별 산업별취업자, 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09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21	373,510
08	145,929	273,364	419,293	225,242	150,623	375,865
09	146,935	275,753	422,688	226,105	151,381	377,486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40	381,545
03	153,838	288,193	442,031	228,882	153,587	382,469
04	154,761	287,199	441,960	229,865	154,356	384,221
05	158,104	287,429	445,533	230,721	155,414	386,135
06	156,866	289,586	446,452	232,444	156,256	388,700
07	157,311	289,258	446,569	233,679	156,898	390,577
08	161,351	289,776	451,127	234,883	158,834	393,717
09	161,652	290,290	451,942	235,985	159,761	395,746
10	162,668	291,155	453,823	241,851	161,415	403,266
11	164,574	294,210	458,784	243,255	162,963	406,218
12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01	168,927	296,961	465,888	245,495	164,497	409,992
02	170,977	296,845	467,822	246,535	164,433	410,968
03	177,719	299,136	476,855	247,713	164,775	412,488
04	171,814	300,045	476,855	250,943	165,888	416,831
05	175,074	301,932	477,006	252,995	166,482	419,477
06	177,213	306,227	483,440	253,422	167,002	420,424
07	168,987	306,077	475,064	253,686	168,036	421,722
08	173,207	305,620	478,827	256,291	169,522	425,813
09	167,636	290,970	458,606	245,719	156,259	401,978
10	164,140	293,034	457,174	249,763	156,316	406,079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총남본부.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10	0.17	0.20	0.33	0.21	0.05	0.05
2011	0.29	0.42	0.24	0.14	0.64	0.00
2011 3/4	0.22	0.25	0.12	0.12	1.44	0.01
4/4	0.40	0.67	0.09	0.34	0.91	0.00
2012 1/4	0.15	0.26	0.02	0.20	0.00	0.01
2/4	0.38	0.23	0.00	0.00	0.26	0.00
3/4	0.24	0.13	0.22	0.03	1.05	0.02
2010 11	0.22	0.29	0.25	0.25	0.08	0.08
12	0.13	0.12	0.27	0.23	0.01	0.05
2011 01	0.20	0.16	0.73	0.14	0.11	0.00
02	0.17	0.09	0.92	0.08	0.00	0.01
03	0.87	1.39	0.43	0.05	0.36	0.00
04	0.10	0.17	0.10	0.00	0.00	0.00
05	0.12	0.21	0.04	0.06	0.11	0.00
06	0.12	0.25	0.02	0.00	0.00	0.00
07	0.19	0.34	0.00	0.22	0.00	0.00
08	0.18	0.27	0.06	0.15	0.65	0.02
09	0.28	0.14	0.31	0.00	3.67	0.01
10	0.39	0.61	0.06	0.13	1.93	0.00
11	0.74	1.33	0.18	0.41	0.60	0.00
12	0.08	0.07	0.04	0.48	0.21	0.00
2012 01	0.18	0.21	0.00	0.48	0.00	0.00
02	0.15	0.23	0.00	0.05	0.00	0.02
03	0.13	0.34	0.05	0.00	0.00	0.00
04	0.20	0.20	0.00	0.00	0.14	0.00
05	0.57	0.27	0.00	0.00	0.29	0.00
06	0.37	0.23	0.00	0.01	0.34	0.00
07	0.21	0.09	0.54	0.07	1.79	0.01
08	0.19	0.10	0.11	0.02	0.16	0.01
09	0.32	0.19	0.00	0.00	1.20	0.03
10	0.25	0.32	-	-	0.31	0.00
11	0.75	1.83	-	-	0.202	0.00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건축허가(㎡)		건축착공(㎡)		토지거래(천㎡)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9	7,203,977	-15.6	5,302,140	-7.1	270,249	35.1	189,970	-0.1
2010	6,636,749	-7.9	6,347,763	19.7	225,210	-16.7	141,946	-25.3
2011	9,980,356	50.4	8,895,818	40.1	192,976	-14.3	88,210	-37.9
2011 3/4	2,920,380	101.8	1,621,229	26.0	40,661	-1.9	19,828	-42.8
4/4	3,644,017	115.2	3,879,427	125.3	49,723	-32.4	20,765	-28.7
2012 1/4	2,438,824	70.8	2,355,123	79.0	45,709	2.7	20,407	-19.4
2/4	2,593,520	30.5	2,561,628	23.1	46,458	-20.0	18,401	-17.5
3/4	2,127,652	-27.1	1,540,403	-5.0	30,807	-24.2	18,187	-8.3
2010 11	812,945	64.2	666,098	34.5	21,637	18.6	9,824	-4.5
12	480,231	-28.6	591,027	24.4	32,469	38.4	9,020	-8.2
2011 01	414,632	3.7	255,721	-2.1	14,265	-3.5	8,750	-37.3
02	403,350	-12.7	358,003	-12.7	12,164	-28.1	8,477	-35.7
03	610,148	13.4	700,517	-0.2	18,073	-11.3	8,082	-37.4
04	593,974	-6.9	724,923	33.7	20,501	-11.3	7,620	-41.3
05	723,947	22.4	700,162	14.9	18,041	11.1	7,459	-40.9
06	669,908	-22.7	655,836	-12.8	19,548	2.6	7,229	-42.2
07	522,989	-9.9	427,285	-7.4	15,056	-10.2	6,903	-43.5
08	1,504,930	208.9	456,491	5.6	13,713	-7.3	6,546	-43.5
09	892,461	135.0	737,453	87.6	11,892	20.2	6,379	-41.2
10	1,518,020	245.2	1,290,749	177.7	11,696	-38.9	5,903	-42.6
11	1,212,422	49.1	1,827,431	174.3	15,292	-29.3	7,391	-24.8
12	913,575	90.2	761,247	28.8	22,735	-30.0	7,471	-17.2
2012 01	558,630	34.7	507,442	98.4	12,571	-12.3	7,159	-18.2
02	714,587	77.2	1,023,484	185.9	14,206	18.9	6,746	-20.4
03	1,165,607	91.0	824,197	17.7	18,932	14.7	6,502	19.5
04	816,591	37.5	1,083,638	49.5	14,986	-15.7	6,180	-18.9
05	827,663	14.3	595,332	-15.0	13,931	-22.8	6,065	-18.7
06	949,266	41.7	882,658	34.6	17,541	-8.2	6,156	-14.8
07	528,696	1.1	475,662	11.3	12,085	-36.8	6,035	-12.6
08	878,978	-41.6	624,679	36.8	10,470	-21.4	5,965	-8.9
09	719,978	-19.3	440,062	-40.3	9,252	-18.9	6,187	-3.0
10	482,405	-68.2	437,787	-66.1	13,496	1.3	4,148	-29.7
11	659,328	-45.6	647,657	-64.6	15,317	8.5	-	-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미분양주택현황,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1.6=100.0)

구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9 11	96.3	-0.3	0.1	93.2	100.0	98.3	90.4	0.0	0.3	87.0	93.1	96.3
12	96.3	0.0	0.0	93.3	100.0	98.3	90.5	0.3	0.1	87.2	93.1	96.3
2010 01	96.3	0.3	0.0	93.4	100.0	98.3	90.6	0.8	0.1	87.3	93.2	96.3
02	96.4	0.6	0.1	93.6	100.0	98.3	90.8	1.4	0.2	87.6	93.2	96.3
03	96.6	0.9	0.1	93.8	100.0	98.3	91.2	2.0	0.5	88.1	93.8	96.4
04	96.4	0.8	-0.1	93.9	99.5	98.7	91.7	2.8	0.5	88.3	94.6	96.6
05	96.5	1.0	0.0	93.9	99.5	99.0	92.5	3.6	0.9	88.7	95.9	97.2
06	96.5	1.1	0.0	94.0	99.5	99.2	92.5	3.7	0.0	89.1	95.5	96.9
07	96.5	1.1	0.0	94.0	99.5	99.2	92.6	3.6	0.1	89.6	95.5	96.9
08	96.3	1.0	-0.2	94.1	98.9	99.2	92.8	3.7	0.2	90.1	95.5	97.0
09	96.4	0.7	0.0	94.2	98.9	99.4	93.6	4.1	0.9	90.6	97.0	97.6
10	96.4	0.3	0.0	94.3	98.9	99.4	94.4	4.6	0.8	91.1	98.2	98.6
11	96.6	0.3	0.2	94.6	98.9	100.0	94.7	4.7	0.4	92.0	97.9	99.1
12	96.7	0.4	0.1	94.8	98.9	100.0	95.1	5.1	0.4	92.7	97.9	99.1
2011 01	96.8	0.5	0.1	95.0	98.9	100.0	95.5	5.4	0.4	93.4	98.0	99.1
02	97.1	0.7	0.3	95.5	98.9	100.0	96.2	5.9	0.7	94.3	98.4	99.2
03	97.8	1.3	0.8	96.4	99.6	100.2	97.3	6.6	1.2	95.8	99.1	99.5
04	98.8	2.5	1.0	97.8	100.1	100.3	98.7	7.6	1.4	97.7	100.1	99.8
05	99.5	3.2	0.7	99.1	100.1	100.5	99.5	7.6	0.8	99.1	100.1	99.9
06	100.0	3.6	0.5	100.0	100.0	100.0	100.0	8.1	0.5	100.0	100.0	100.0
07	100.7	4.4	0.7	100.9	100.5	100.2	101.0	9.1	1.0	101.0	101.0	100.4
08	101.6	5.5	0.8	102.2	100.9	100.2	102.3	10.3	1.3	102.9	101.5	100.5
09	102.5	6.4	0.9	103.4	101.3	101.4	103.5	10.6	1.2	104.5	102.1	102.7
10	103.4	7.2	0.9	104.8	101.3	101.7	104.6	10.9	1.1	106.3	102.1	102.7
11	104.4	8.1	1.0	106.5	101.3	101.7	106.2	12.1	1.5	108.9	102.1	102.7
12	104.8	8.4	0.4	107.2	101.3	101.7	106.8	12.3	0.6	109.9	102.1	102.7
2012 01	105.3	8.8	0.5	108.0	101.1	101.7	107.5	12.7	0.6	111.0	102.2	102.7
02	105.7	8.9	0.4	108.6	101.1	101.9	108.1	12.5	0.6	111.9	102.2	102.7
03	106.4	8.8	0.6	109.6	101.2	102.2	109.0	12.0	0.8	113.1	102.2	103.3
04	107.5	8.8	1.0	110.3	101.2	102.5	110.3	11.8	1.2	115.2	102.2	103.6
05	108.0	8.5	0.5	112.3	101.1	102.7	111.0	11.5	0.6	116.3	102.1	103.9
06	108.6	8.6	0.6	112.8	101.1	103.6	111.5	11.5	0.5	116.9	102.4	104.6
07	109.3	8.5	0.7	113.8	101.2	104.0	112.6	11.5	1.0	118.3	102.7	105.8
08	109.7	8.0	0.4	114.3	101.3	104.8	113.2	10.7	0.5	118.9	103.1	107.0
09	110.3	7.6	0.5	115.1	101.4	105.6	114.1	10.2	0.8	120.1	103.2	107.7
10	110.8	7.2	0.5	115.2	101.3	106.2	115.2	10.1	0.9	121.9	103.2	108.6
11	111.6	6.8	0.7	117.0	101.4	106.7	116.9	10.1	1.6	124.6	103.2	109.1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의약바이오 국내외 전시회 등 참가지원」 사업공고

- 사 업 명 : 의약바이오 WeakPoint 극복을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 목 적 : 충청권 의약바이오산업 지원을 통한 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관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 접수기간 : 2012. 12. 20 ~ 2013. 2. 28일까지(지원예산 소진시 조기접수 마감)
- 사업내용

사 업 분 류	지 원 내 용	비 고
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외 전시회 부스비, 장치비, 홍보비등	2013.3.30일 이전 개최예정인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한함
컨퍼런스 참가 지원	해외 컨퍼런스 참가비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공고일부터 ~ 2013년 3월 30일
 - 지원예산 : 총 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 지원기업수 : 총 8개사 내외 (전시회 6개사, 컨퍼런스 2개사)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zzz@ctp.or.kr
 - 우 편 접 수 : (330-8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1103호 『의약바이오사업』 담당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041-589-0633)으로 문의

충남스마트콘텐츠기업 컨설팅 모집 공고

- 추 진 목 적 : 현재 지역 스마트콘텐츠 기업은 대다수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 초기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아 노하우가 부족
- 컨설팅 대상 : 충남스마트콘텐츠센터 입주기업(예산범위내 우선 지원)
- 컨설팅 내용 : 기업 운영, 기획 및 비즈니스모델, 디자인 및 UI/UX, 스마트콘텐츠 개발 등
- 지 원 내 용 : 전문가 컨설팅 비용(진흥원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준용)
- 신 청 접 수 : 2012. 12. 24 ~ 2013. 2. 28
- 접 수 방 법 :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 xsdenied@ctia.kr
 - 우 편 접 수 : (331-9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기반조성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기반조성팀(041-620-6414)으로 문의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1. 5월호

충남 전략산업의 성장에 대한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과 향후 논의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1. 6월호

FTA의 영향과 대응방향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충남의 항만 물동량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7월호

SNS의 성장 잠재력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역할

KT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충청광역경제권 협력의 필요성 및 대안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1. 8월호

충남 녹색성장 실태와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1. 9월호

지속가능경영의 이해와 효과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충남의 지식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하광학

2011. 11월호

충남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분석 및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 백운성 · 김양중 · 임형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1. 12월호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부동산연구센터 조수희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1월호

2012년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임병철

2012. 2월호

2012년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황정현

2011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2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2. 3월호

경기종합지수의 개념과 지역경기종합지수의 필요성
전북발전연구원 최성환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려제정 추진에 관한 일고찰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2012. 4월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체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남지역 에너지소비구조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이종윤

2012. 5월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자치단체의 역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남지역의 소득불평등 측정 및 추이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2. 6월호

유로존 재정위기 항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2. 7월호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충남 주택시장 영향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노동행정 통계로 본 충남지역 노동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곽선아

2012. 8월호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9월호

충청남도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충남의 기후변화의 영향과 부문별 피해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2012. 10월호

국가통계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통계지리정보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충남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성과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2012. 11월호

최근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새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2. 12월호

충남지역 상권과 대형소매점 영업활동 규제방향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중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규칙과 충남도의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박경철

안전한 먹거리로
거정성을 담아 만든
맛있는 도시락

(주)즐거움
나눔상

-충남형 사회적기업 1호-



(주)즐거움
나눔상

330-95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4-5
Tel. 041. 558. 0615 Fax. 041. 558. 0614

다들 카페 http://cafe.daum.net/zlebab

위 기업은 충청남도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지원합니다.